

V. 과학과 예술

1. 과학
2. 음악
3. 미술
4. 체육·무용
5. 연극·영화

V. 과학과 예술

1. 과 학

식민지 한국에 과학기술이 있었는가.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모습이라 할 대학·연구기관·과학단체·학술잡지 등은 모두가 식민지시기에 등장한 것들이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이전 시기에는, 물론 그 밖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 과학기술은 역설적이게도 일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태동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 행해진 과학기술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시기와는 상이한 독특한 특징들이 엿보인다. 과학기술의 현대적 모습이 갖추어지는 했지만 그 실제 내용에서는 피지배민 한국인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예컨대 경성제대 이공학부·중앙시험소·조선화학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서 한국인은 도무지 참여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만 한국일 뿐 그 주도자들은 완전히 일본인 일색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렇다면 식민지체제 아래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명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¹⁾ 한국인의 주체적인 참여 속에 그 성과가 한국인의 자기 향상, 나아가서는 민족 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식민지시기라 할지라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내용과 수준이 일본인의 과학기술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뒤떨어져 있었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자못 큰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열어 나간 한국의 과학기술은 당시는

1) 이 글은 식민지시기 한국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 金根培, 《日帝時期 朝鮮人 과학기술인력의 성장》(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을 많이 참조하였다.

물론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이 시기 한국의 과학기술은 다른 방식으로 진전되게 되었다. 식민지 정부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리는 만무하였으므로 한국의 과학기술은 한국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과학교육을 비롯해서 그 계몽 및 활용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대부분을 일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인 자신들이 열어 나가야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한국의 과학기술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활동에 크게 힘입어 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여건

이 시기 국내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은 상당히 취약하였다. 대학으로는 뒤늦게 세워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가 유일한 곳이었다. 전문학교는 몇 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숫자와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가 세운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선교사들이 운영한 연희전문학교 數理科, 한국인이 설립한 대동공업전문학교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비하면 하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등학교는 여러 개가 세워져 이공계 교육기관의 가장 주된 형태를 차지하였다.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 교육을 추진한 세력은 일단 세 집단, 즉 일제·선교사·한국인으로 나뉘어진다. 식민지 지배와 경영의 필요 때문에 일제는 주도권을 쥐고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과학기술이 조직적·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발전하기 힘들만큼 현대적인 형태로 탈바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던 선교사는 과학기술을 기독교 전도의 방편으로, 한국인은 다분히 실력배양 및 양성의 일환으로 관심을 기울이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이공계 교육기관이 다수 세워져 운영되고 있었다. 국가에 의해 관립 형태로 농상공학교·鑛務 학교·郵務 학당·電務 학당·측량견습소, 민간에서도 직조·철도·측량·공업제조 등과 관련

된 교육기관이 잇달아 만들어졌다.²⁾ 물론 이들은 초보적인 수준으로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되게 운영되지는 못하였고 더구나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의 등장은 아직 요원한 일로 보였다. 그럼에도 이들 교육기관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인과 초빙된 외국인 전문가들에 의해 서서히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병합되면서 과학기술교육은 일대 개편을 겪게 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히 고급인력일수록 필요한 과학기술자는 일본인을 쓰면 되지 한국인을 새로이 교육시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하급인력의 경우 분야에 따라 한국인 대상의 기술교육이 유지, 확충되기도 했으나 많은 교육기관은 일시에 사라지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³⁾ 이에 따라 일제의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시책은 한국인 중심의 하급 기술교육과 일본인 중심의 고등교육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가장 먼저 1915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가 세워졌다. 이는 한국인의 반감 및 저항을 무마하고 대내외에 자신의 善政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식민지 지배를 본격화하기 위한 갖가지 새로운 조치와 더불어 분야별로 전문학교를 1개씩 설립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공업전문학교는 한국을 개화시킬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가장 앞서서 시행되어 나갔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한국인을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도에 대거 탈락시키고 3·1운동 다음해부터는 內鮮공학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하에 아예 일본인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 즉 한국인은 전체 정원의 1/3 이내로만 선발하고 그

2) 이들 교육기관은 1899년에 관립상공학교 관제가 반포된 것을 계기로 그 직후에 대거 세워졌다.

朴星來, 〈開化期の 科學受容〉(《韓國史學》 1, 1980), 251~268쪽.

金泳鎬, 〈韓末 西洋技術의 受容〉(《亞細亞研究》 11-3, 고려대, 1968), 297~343쪽.

金義煥, 《우리나라 近代技術教育史研究-舊韓末(1876~1910)을 中心으로-》(博英社, 1971).

3) 가장 대표적으로 광무학교·우무학당·전무학당·철도학교 등이 폐지되었다.

金根培, 〈대한제국기~일제 초 官立工業傳習所의 설립과 운영〉(《韓國文化》 18, 서울대, 1996), 423~465쪽.

李鎮昊, 《大韓帝國地籍 및 測量史》(土地, 1991).

것도 인기가 없는 학과들에 주로 배정되었던 것이다.⁴⁾

일제의 주도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기관들이 다소 확충된 것은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무엇보다 한국 및 대륙지역에서의 광업 개발이 크게 요구되면서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성광산전문학교가 1939년에 세워졌다. 전시상황으로 수요가 늘어난 통신인력을 충당하고자 전문학교 수준의 조선무선통신학교가 다음해에 개설되고, 아울러 경성고공이 확충되면서는 그 부설로 이과교원양성소도 설치되었다.⁵⁾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한국에서 최초의 이공계 학부인 경성제대 이공학부가 1941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학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중심이 되고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활동이 그것에 부가된 형태를 띠었다. 특히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토륨을 포함한 희귀 원소를 개발할 의도로 그 부존지로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에서 이들을 발견,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이 학부는 학생들을 매우 적게 받아들였고 한국인은 그 중에 1/3 이내에 불과했으므로 소수의 졸업생만이 배출되게 되었다.⁶⁾

이처럼 일제는 과학기술교육에서 한국인은 하급교육, 일본인은 고등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민족에 따라 차별적이고 서열적인 정책을 폈다. 심지어는 하급교육도 그 실상은 일본인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 한해 한국인의 참여가 주어질 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훨씬 배제적이었다. 이는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제가 주도하던 관청이나 기업으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물론 식민지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극히 일부의 한국인들

4) 경성고등공업학교는 공업전습소에 설치된 특별과가 확대 개편되는 방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정인경,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김영식·김근배 편, 《근현대 한국 사회의 과학》, 창작과 비평사, 1998), 167~202쪽.

姜 雄, <京城高等工業學校と植民地朝鮮の技術者養成>(《科學史研究》II-35, 1996), 1~14쪽.

5) 金英宇, 《韓國中等敎員養成敎育史》(敎育科學社, 1989), 36~47·56~69쪽.

6)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纂委員會, 《紺碧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金根培, 앞의 글, 366~391쪽.

에게는 선정의 본보기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워낙 적었던 데다가 그마저도 뒤늦게 세워진 관계로 배출된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선교사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한국에서의 과학기술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기독교 신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상호간에 적지 않게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YMCA, 경신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등 같은 선교기관이나 학교에 기술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어 1915년에는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한국 최초로 과학계 고등교육과정인 수물과가 만들어졌다. 이 학과의 운영에는 무엇보다 미국 북감리교 소속의 교육선교사들이었던 벡커(A. L. Becker), 루퍼스(W. C. Rufus), 밀러(E. H. Miller) 등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내에서 과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배출되었으며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과학교원, 더러는 해외로 나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⁷⁾ 이밖에 숭실전문학교에서도 이과를 개설한 적이 있었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못가서 중단되고 말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사실 과학기술교육에 대해 상당기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필요를 느끼기 힘들게 되었고 그를 진흥시킬 만한 현실적 힘도 갖출 수 없었던 데에 있었다. 과학기술은, 당시의 낮은 수준에서는, 급박하게 당면한 민족독립, 실력양성, 차별철폐 등과 같은 절박한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결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과학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그 진흥이 모색될 필요가 컸음에도 주권을 잃은 관계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식민지체제가 한국 과학기술에서 빚어낸 가장 심각한 비극과 불행은 바로 사회적 당면과제와 과학기술 진흥간의

7) 閔庚培, 〈宣敎政策 決定過程에서의 宣敎本部 影響力의 問題—延禧專門學校 設立을 중심으로—〉(《東方學志》 46~48합집, 연세대, 1985), 555~584쪽.
연세대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885~1985》(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51~63 · 143~222 · 243~304쪽.

괴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위상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났다. 1910년대에 이미 일부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으로 모금되었던 돈을 民立大學 설립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대학 설립인가를 일제 총독부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어 1920년부터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전개되면서 모금운동과 함께 대학설립안이 구체적인 형태로 모색되었다. 1천만 원의 거액을 확보하여 처음에는 기초 학문분야(법과·문과·경제과·이과)를 개설하고 이어 실용 학문분야의 학과들(공과·의과·농과)까지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⁸⁾ 하지만 이 활동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당시 일제가 제기한 경성제대가 세워지는 데 일정한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 후에 한국에서는 1930년대 초에 보성전문학교 창립30주년기념사업회 결성을 계기로 보성전문을 확충하여 이과·공과 등을 갖춘 대학으로 승격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과학기술을 새롭게 자각하고 그 진흥을 위해 한층 노력하게 된 것은 1930년대 중후반에 전민족적으로 전개된 과학운동을 겪으면서부터였다. 각 부문에서 한국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자기 발전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과학대중화와 전문연구기관 건립 등을 목표로 한 과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지역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할 활동조직이 여럿 만들어지고 다채로운 과학 계몽활동이 추진되었다.⁹⁾ 자동차·방송·실험실 등과

8) 盧榮澤, 〈民立大學 設立運動 研究〉(《國史館論叢》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이명화, 〈民立大學 設立運動의 背景과 性格〉(《한국독립운동사연구》5, 독립기념관, 1991).

9) 임종태, 〈金容璫의 발명학회와 과학운동〉(김영식·김근배 편, 앞의 책), 237~273쪽.

玄源福, 〈1930年代의 科學技術學 振興運動〉(《民族文化研究》12, 1977), 239~286쪽.

같은 과학의 첨단기기와 새로운 모습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기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 무렵부터는 일제가 대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세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정치적 색채가 약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활동은 제약을 덜 받으며 활기를 떨 수가 있었다.

이 시기에 여러 개로 증설된 5년제 공업학교¹⁰⁾는 총독부의 허가와 일부 보조가 수반되었지만 당시 한국인들의 광범한 참여 열기와 재정 후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국인들이 이끈 설립기성회의 활동을 통해 공업학교 설립 유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이 세운 유일한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인 대동공업전문학교는 그 가장 두드러진 성과물이라고 하겠다. 이 학교는 신사참배문제로 폐교를 당한 숭실전문학교 존속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광업가 李鍾萬이 150만 원의 거액을 들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1938년 평양에 세워졌다. 설립자 이종만은 금광 경영을 통해 모은 자금을 가지고 그 동안 꿈꾸어 오던 大同思想에 기반한 이상사회 건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열악한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앞장 서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세워진 대동공전은 전적으로 한국인 학교로 운영됨으로써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다른 지역에서의 학교 설립 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¹¹⁾

그렇지만 한국인 혹은 선교사들에 의한 대학 설립은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학교설립운동이 활기를 맞던 1930년대 중반부터 보성전문,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 이화여자전문학교, 뒤늦게 세워진 대동공전 등에서 대학 설립활동이 전개된 적이 있었다. 과학계통으로는 보성전문이 공과·의과·이

10) 이들 5년제 공업학교는 중일전쟁 전까지 2개(경성공업학교, 진남포상공학교)에 불과하던 것이 이후 몇 년 사이에 10여개로 증설되었다.

11) 이 대동공전은 해방후 북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金根培, <日帝時期 평양의 대동공업전문학교와 설립자 李鍾萬>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경제사학회, 1996), 309~316쪽.

——, 앞의 글(1996a), 306~324쪽.

과, 연회전문은 이과·건축과, 대동공전은 공과·농과·의과·이과·이화학 연구소 등을 갖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 한국인의 재력이 증진되고 교육에의 관심이 커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았지만, 곧 이은 중일전쟁과 세계대전의 발발로 역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말았다.¹²⁾

이렇듯 한국인과 선교사들이 만들거나 크게 후원한 학교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입학생은 물론 교수진도 한국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대동공전과 연회전문 수물과를 일제가 세운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광전·경성제대 이공학부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들 한국인 대상의 학교는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학 기회가 극히 제약되어 있던 한국인 학생들에게 숨통을 틔여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국내에는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이 너무도 적어서, 특히 대학 진학자일수록 절대 다수는 고등교육을 익히기 위해 해외유학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2) 민간 주도의 해외유학

한국인이 해외유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였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좌절경험과 이로부터 얻어진 일부의 성과가 그것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다. 이 때부터 즉각적인 독립을 위한 활동 못지 않게 그를 대비한 실력양성의 필요성이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에서 보여지듯 각 분야에서 절실히 느껴지게 되었다. 특히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열의는 다분히 일제에의 대항 및 대응의 성격을 지니며 거세게 나타났다.

이 때부터 해외유학이 그 동안의 각종 제재 및 억제조치가 다소 완화된 결과 한결 자유로워졌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서는 일본의 소학교나 중학교 단계부터 유학해야 했던 것이 학제와 교과과정의 개선으로 그

12) 金根培, 〈식민지시기 과학기술자의 성장과 제약—인도·중국·일본과 비교해서—〉(《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165~168쪽.

렇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본의 고등학교로, 때로는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유학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비로소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도 해외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유학의 기회가 일부 특권층-출중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산을 가진-에서 더욱 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³⁾

사실 한국인들에게 해외유학은 앞선 선진학문을 교육받을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이 때문에 병합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고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비유학생을 해외로 꾸준히 파견하였다. 일제도 이 같은 한국에서의 노력을 묵과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한동안 관비유학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갔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해외유학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 시기에 들어 개인이 앞장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민간 주도에 의한 사비유학으로 주된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식민지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국가보다는 각 개인의 주동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유학 경비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학과정과 수학후의 진로 등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였다. 결코 식민지 정부가 나서서 해외유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려,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총독부의 역할은 그것이 한국 통치에 가져올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그 추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해외유학은 다른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일찍부터 개인이 앞장서는 민간 주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해외유학의 주된 대상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었다. 일본은 무엇보다 식민지 지배국으로서 정치외교적 관계가 긴밀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생활 관습이 매우 흡사한 점 등의 이유로 선호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본토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국내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대를 받았

13) 金根培, 위의 글, 171~172쪽.

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에 비해 기독교계 학교 출신자들 중에는 선교사들의 지도 및 후원,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된 영어교육, 선진 학문 중심 지로서의 인식, 문명화된 국가에 대한 동경심 등으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졸업후 진로가 불투명함에도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로서 독실한 종교적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미국행을 택하였다.

일본유학은 1919년까지만 해도 6~7백 명 수준—다른 국가로의 유학보다 많은 수치이기는 하지만—에 머물던 것이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23년에는 4천5백여 명에 이르렀다. 물론 관동대지진에 따른 한국인들의 무고한 사상으로 잠시 침체를 맞기도 했지만 다른 국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았다. 특히 1930년대 중반부터 유학생 수가 다시 급격히 불어나며 1940년대에는 전체 규모가 2만 명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중등학교 혹은 전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대학 재학생은 전체의 1/10에도 크게 못미쳤다.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대학 재학생 중 이공계 전공자는, 과학기술의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공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과 판단에 맡겨짐에 따라, 5% 내외(의학과 농학도 비슷)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¹⁴⁾

이렇게 과학기술을 전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체제에서 나타난 과학기술을 둘러싼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사회문화적 괴리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일본은 일찍부터 서구 과학기술의 수용과 발전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이 무렵에는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발전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녀 이공계 대학은 국가가 운영하는 명문 관립대학에 설치되었고 그 전공자는 사회상층의 집안으로부터 나왔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위상이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오히려 낮아짐에 따라 의욕적이고 우수한 사람들도부터 이공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힘들게 되었다. 그보다는 사회 중하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과학기술에 관

14) 박성래, <한국 과학기술자의 형성 연구>(한국과학재단, 1995).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학·문학 등 전통적으로 중시된, 권력 지향에 도움이 될 문과 계통의 학문분야를 전공으로 삼았다.

심을 갖고 이를 전공함으로써 적은 수이지만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이 나오게 되었다.¹⁵⁾

그에 비하면 미국유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유학생 전체 규모가 일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대학 재학생은 일본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 적도 있었다. 이들은 해외유학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비교적 많은 준비를 하며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이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20%(의학과 농학은 1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이는 일본으로의 유학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권력 추구하고 밀접히 관련된 학문 습득에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면 미국유학은 그 같은 길이 막히면서 보다 기술적인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데 요구되는 전공을 선택한 결과였다.¹⁶⁾

식민지시기 동안에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총 4백 명 정도가 되었다. 이 수치는 그 동안 추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적은 인원이며 물렸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중 국내의 경성제대 출신자 3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해외유학을 통해 배출된 사람들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 2백 명, 미국 1백 명, 그밖에 만주·유럽 등지에서 50명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자는 극히 적은 약 10명으로 모두가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5명씩 배출되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이학과 공학 박사학위는 李源喆(미시간대학, 천문학)과 崔冕(오하이오주립대학, 화학공학)이 각각 1926년, 1934년에 취득하였다.¹⁷⁾

그나마 이 정도의 인력이라도 양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스스로의 개인적 노력과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이루어진 해외유학의 덕분이었다. 당시 해외유학은 민족의 앞날이 걸린 거족적인 일로 여겨지던 시대 분위기에어서 유학 당사자들은 흔히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 속에 축하를 받았다. 경제적

15) 당시의 처한 현실로써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신분상승을 기하기가 어려웠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높지 않은 출신배경으로 인해 과학기술로의 진출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박성래, 《한국 과학기술자의 형성 연구 2 : 미국유학 편》(한국과학재단, 1998).

17) 박성래, 위의 책, 72~87쪽.

여력이 없어도 장래가 촉망되거나 향학열이 남다른 사람들은 가깝게는 주변 친지, 멀리는 독지가들로부터 상당히 기대 섞인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유학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올 때도 성대한 환영을 받고 일간지에 그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일대 뉴스거리가 되었다. 결국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 과학기술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의도하지 않은 부수물보다는 한국인 자신들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결과의 몫으로 크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교육, 그 하나로서의 해외유학은 일제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의 한 양식이었다. 민족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데 필요한 실력양성을 기르고 개인적으로는 우월한 능력을 갖추어 차별과 멸시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었다. 그 덕분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국가 주도 없이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는 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던 그 동안의 전통적 인식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사고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수반되어 나타났다.¹⁸⁾

3)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사실 한국인들에게 훨씬 어려웠던 것은 과학기술을 공부할 대학에의 진학보다도 졸업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찾는 일이었다. 당시 이공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고등교육기관·시험연구기관·관청·대기업 등이었지만 모두 일제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들어가기에 매우 힘들었다. 단지 이들 기관에서는 한국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 주려는 의도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을 채용하였던 것이다.¹⁹⁾ 이에 따라 대다수 한국인 이공학 전공자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진로를 모색하지 않

18) 金根培, 앞의 글(1998), 171~174 쪽.

19) 일례로 최고의 교육기관인 경성제대 이공학부에는 한국인 교수가 한 명도 없었고 경성고공·경성광전, 그리고 시험연구기관인 중앙시험소·연료선풍연구소·지질조사소에는 각각 한 두명의 한국인이 있었을 뿐이다.

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중등학교의 과학교원 자리였다. 중등학교는 일제가 운영하는 공립 이외에 한국인과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이 상당수 있어 그만큼 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사립학교인 보성고보·중앙고보·송도고보·경신고보 등은 여러 명의 이공계 졸업생을 채용한 대표적인 중등교육기관들이었다. 그런데다가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대단히 가치있는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던 시대상황이어서 이들 이공계 졸업자들도 교육기관으로의 진출을 뜻있게 받아들였다.

유학 대상국가에 따라서는 미국유학 출신자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피지배민 뿐만 아니라 외국 학위자들에 대한 일제의 차별로 이들은 소수의 기독교계 기관 이외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연희전문·숭실전문·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교육기관들이었다. 물론 이들 기관도 초기에 공부를 마치고 온 소수의 졸업생들에게만 전공과 관련된 일 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불가피하게 미국유학 출신자들의 일부는 자신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상당수는 심지어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누가 세워 운영했는가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는 이처럼 판이하게 달랐다. 한국인이 설립한 대동공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등과 함께 선교사들이 세운 앞서의 교육기관들은 학생은 물론 교수진까지도 한국인 중심으로 짜여짐으로써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소중한 활동의 공간이 되었다. 기업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인이 설립한 경성방직·대동광업·조선제사 등은 한국인 졸업생들을 채용했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과학기술 잠재력은 배출된 전공자들의 규모와 더불어 이들이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존재,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인 졸업생 중에는 극히 드문 일이지는 했지만 나중에 아주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발휘한 사람도 생겨났다. 분류학이나 광물학 같이 지역 특성이 강한 과학분야에서는 국내의 연구자, 화학이나 물리학처럼 보다 보편적

인 과학분야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연구자들 중에서 두드러진 연구업적을 낸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石宙明(가고시마고농 졸업, 생물학), 趙福成(평양고보 사범과, 생물학), 鄭台鉉(수원농림, 생물학) 등이 있고 이들은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가운데 정교한 장비 없이도 거주자로서의 지역적 이점을 살려 수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에 비해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李泰圭(교토제대 박사, 화학), 李升基(교토제대 박사, 응용화학), 金良瑕(도쿄제대 박사, 화학) 등은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자들로서 명성있는 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탁월한 업적을 내게 되었다.²⁰⁾

특히 이태규와 이승기는 그들이 일궈낸 높은 연구업적과 사회적 지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히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들은 당시 식민지 피지배민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교토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인 과학자를 능가하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냄으로써 자신들이 지닌 능력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식민지 기간에 발표한 논문편수는 이태규 37편, 이승기 48편으로 일본의 유명 과학자들에 비해서도 결코 손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도 이태규는, 물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물리화학 분야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리-아이링(Ree-Eyring)이론을 창안하고, 이승기는 섬유화학 분야에서 나일론에 뒤이어서 새로운 합성섬유인 합성1호(후에 북한에서 비날론으로 명명)를 개발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²¹⁾

이들이 억압적인 시대 상황에서도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체제가 빚어낸 과학활동의 이중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대다수의 한국인 과학자는 일제의 지배로 말미암아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경력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제도화된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에 들어가지

20) 문만용, 〈石宙明의 나비 연구와 ‘조선적 생물학’〉(김영식·김근배 편, 앞의 책), 203~236 쪽.

김용덕,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 : 이태규 박사의 생애와 학문》(도서출판 동아, 1990), 47~93쪽.

李升基, 《科學者の手記》(평양 : 國立出版社, 1962), 5~24쪽.

21) 물론 논문편수로만 보면 한국인 과학자 중 석주명과 조복성이 1백편 내외의 논문을 발표할 만큼 더 많았지만 그것은 사례연구 위주로 이루어지는 분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에 크게 기인한 결과였다.

않더라도 나름의 연구활동이 가능한 박물학 같은 분야에서나 한국인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국내에서 한국인이 상당수 참여한 가운데 조선박물학회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밀과학(exact science)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도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올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이어 그곳의 과학기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일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인 과학자들은 주변부에서 지역적 특성을 띤 과학활동을 한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중심부로 진출하여 국제수준의 과학활동을 벌일 수 있기도 하였다. 양극화된 과학활동이 식민지체제라는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민족의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지며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과학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당사자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은 물론 주변에서 쏟은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도 큰 몫을 하였다. 이들은 피지배민 한국인들에게 가해지는 민족적 열등과 모멸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 우월한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한 가족이나 집안에서는 집안의 앞날을 위해 적어도 문중의 한 사람, 대개는 집안의 장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면한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실력을 보일 경우 그들은 기업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독지가들로부터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²²⁾ 이같이 당사자, 주위 친지, 그리고 독지가들의 노력이나 관심, 후원이 없이는 과학기술에 관해 고등교육을 받고 일부는 탁월한 업적까지 내게 된 것을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이 식민지 한국 과학기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과학기술자들과 그들이 벌인 활동이 다소 존

22) 일례로 이태규는 경성방직의 김연수와 금강제약의 전용순·이승기는 역시 김연수로부터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각각 1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바가 있었다.

재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전문과학의 형성, 즉 전문화와 제도화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존재했던 주요 과학단체와 과학기관들은 어느 하나 한국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속에 설립 및 운영된 것이 없다시피 하였다. 한국인 박물관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회를 만들거나 연회전문 이과교원들이 과학클럽을 운영하는 등의 일들은 있었으나 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다분히 그들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각자 자신의 과학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 과학기술에서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식민지적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일반대중 및 학생을 상대로 한 계몽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벌였다. 이 때만 해도 과학기술교육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형편이었다.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계몽을 자신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과학활동의 하나로 여겼다. 그들은 이를 통해 전래의 미신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가정과 생활을 과학화하며 나아가서는 근대교육과 산업도 크게 진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1930년대 중반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과학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집단적으로 표출된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학운동은 金容瓏(경성고공, 요업)을 비롯한 초기에 경성고공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끌어졌다. 실질적인 주도자로서 김용관은 각계 인사들의 영입을 통한 발명학회나 과학지식보급회와 같은 단체의 조직에서부터 활동방향 제언, 행사 기획, 대중 선전, 잡지 발간 등 모든 일들에 앞장을 섰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과학운동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김용관 개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를 도와 혹은 그와 함께 과학운동을 벌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는 李 仁(변호사), 朴吉龍(경성고공, 건축), 玄得榮(경성고공, 염직) 등이 있었다. 그만큼 이들은 한국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고등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의 갱생에 도움이 될 과학기술에 대해 고심하고 그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²³⁾

이 때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논의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과학 기술을 진흥시켜 나가자는 한국적 과학기술 발전론과 서구나 일본의 앞선 과학기술을 적절히 수용, 활용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자는 보편적 과학 기술 발전론이 그것이었다. 한 쪽은 한국 산업의 자립화(소공업화)를 내세우며 그에 활용될 과학기술의 독자적인 발전을 내세웠고 다른 쪽은 한국 산업의 근대화(대공업화)를 역설하며 그에 요구되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의 확보를 주장하였다. 이들 두 흐름은 아주 판이하지만 공존하며 당시 한국인 과학자들의 과학관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식민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전과 개발, 한국 내에서의 과학 정착 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중에서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수 등장하고 그 중의 일부는 아주 뛰어난 과학적 성취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적 특징으로 부상하고 있던 연구활동보다는 일반대중을 계몽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대두된 대립적인 과학기술관, 과학활동의 이중성 등은 이후에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심사숙고해서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되었다.²⁴⁾

〈金根培〉

2. 음 악

한국음악사에서 근대음악의 시기는 1860년부터 1945년까지 약 85년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860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근대음악사 전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근대음악사 후기’라 부르며, 양 시기는 음악사적으

23) 임종태, 앞의 글, 237~273쪽.

24) 金根培, 〈20세기 식민지 조선의 과학과 기술-개발의 씨앗〉(《역사비평》 56, 역사문제연구소), 297~313쪽.

로 그 성격이 달랐다.

근대음악사 전기의 시기는 안으로는 인간화 실현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음악사회를 전개하고,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제국주의에 대응하면서 서양음악도 자주적으로 수용하며 전개하였던 시기였다.

근대음악사 후기의 시기는 다시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강점이 단행된 시기부터 1919년초까지 제1기, 1919년 3·1운동부터 1931년 9월까지 제2기,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으로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의 전시체제 시기를 제3기로 구분한다. 이 후기시기에는 한국음악이 일제에 의하여 예외없이 억압되고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적인 일본음악의 강요에 따라唱歌・歌謠(대중가요・시국가요・애국가요)・歌曲 등의 노래가 강압적으로 소통되었다. 이에 한민족은 독립운동으로서 항일음악을 창작・보급하였으며, 민요・관소리・창극 등 민족음악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민족음악을 창작하는 한편 양악의 唯美主義적 탐닉에 의한 음악활동도 전개하였다.

1) 제1기－무단통치기의 음악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일제는 한국을 강점후 1910년 8월 25일 <집회 취체령>으로 ‘다중의 집회를 금지’시킴으로서 음악회 자체가 통제를 받았다. 또 <보안법>으로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회와 학교의 집회도 제한과 금지는 물론 해산까지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리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나 낭독과 언어, 표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음악회가 위축되었다.¹⁾ 또, <신문지법>과 <출판법>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모든 신문발행이 금지되고 조선총독부의 어용지인 《매일신보》・《경성일보》・《서울프레스》가 일제통치의 안녕 기준에 따라 음악기사를 통치의 선전강화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음악단체 조직의 자유도 박탈되고 허락받지 않은 공연은 일체 금

1)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全) 第9輯 ‘衛生警察’ 第2章 警察 항목 참고.

지되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무대예술 공연이 가능했던 분야들은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비정치적이고 비민족적인 작품이나 종교적인 성격의 공연, 그리고 친일적 성향의 작품공연들이어야 했다.

양악계의 음악회는 집회가 가능했던 교회와 학교강당에서 교회음악과 학교음악 중심으로 열리었다. 또,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조선호텔·각국의 영사관, 각 지역의 歌舞伎座와 극장 등지에서 음악회가 열리었다. 이곳의 음악회엔 이화학당과 평양사립 숭실대학 음악대 등의 학생과 교사, 개신교 찬양대와 목사, 각국 공사 부인, 1918년 동경음악학교(우에노)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김영환, 동경 유학생들의 음악악우회, 1919년부터 김영환·홍난파·김형준 등이 중심이 된 경성악우회, 용산 신학교의 신학생들의 그레고리오성가, 조선주차군 육군군악대, 이왕직 양악대 등이 중심이 되어 공연활동을 하였다.²⁾

한편 전통음악분야의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이미 허가받은 광무대·장안사, 신파극 중심의 연흥사,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청극 등을 공연하는 단성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밖의 영화중심의 우미관, 영화와 신파극 중심의 황금관·제1대정관·제2대정관 외에 전국적으로 가무기좌와 극장에서 공연과 영화상영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민족적 성향의 작품이나 집회는 보안법으로 철저히 통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분야가 애국가류의 창가라 믿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미 1909년 10월부터 통감부는 학부를 앞세워 서울과 전국의 학교 앞으로 ‘부적당한 창가’를 일체 엄금시키는 훈령을 내렸으며,³⁾ 각 연회 및 공연장에서 음악행위를 금지시켰다.⁴⁾ 초대 총독인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조선)독립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을 반대하는 불량 창가이자 위험한 노래”라 하면서 이 창가들을 <보안법>으로 철저히 단속하였다.⁵⁾

2) 경성악우회가 1919년 10월 13일 YMCA에서 제1회 음악회를 개최한 이후 양악 전문가들의 조직체가 본격화되어 갔다. 《매일신보》, 1919년 12월 29일.

3) 《대한민보》, 1909년 10월 30일 및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8일.

4)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4일.

5)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朝鮮教育會, 1936), 31쪽.

(2) 한국전통음악의 약체화

일제 강점하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은 약체화와 해체화를 면치 못했다. 즉 일제는 장악원 음악을 계속 약체화시켜 나갔다. 한국음악과 양악을 민간차원으로 부활시키려 한 ‘조양구락부’의 설립,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로의 발전은 이들의 후원단체인 ‘정악유지회’ 회원 대부분들이 친일귀족이었기 때문에 전통음악의 활동과 전개에는 한계가 있었다.⁶⁾

한편 일제는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식민지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온갖 행사에 동원시켰다. 대표적인 경우가 19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진행된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의 가정박람회’에 광고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을 비롯한 전체 예술인들을 동원시킨 경우다. 다동기생조합의 경우는 ‘日鮮融和’와 장래 발전을 축원하는 <시정 5년 기념 성택무>에 13인을 출연시켜 13도를 상징토록 하였고,⁷⁾ 또, 광고기생조합의 기생들로 하여금 샤미센으로 일본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으며,⁸⁾ 김창환과 이동백 등의 명창명인들을 출연시키는가하면, 10월 31일 일본 천장절에 맞춰 일본국가행렬까지 동원시켰다.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여악·태의원·관기제도 등을 폐지시키고, 대신 새로운 창기-기생조합 조직을 유도하여 1908년부터 경시청 통제하에 ‘창기조합 시대’가 전개되었다. 1913년부터는 조선정악전습소가 분교실로 운영하는 다동조합이나 그 밖의 광고조합이 설립되면서 이후에 경화조합·한남조합 등의 영업이 개시되었으며,⁹⁾ 1914년부터 조선권번이나 한성권번·대동권번·한남권번 등 ‘권번시대’가 전개되었다.¹⁰⁾ 일제는 1908년 9월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 1911년 8월 <예기 건강진단규칙>, 1916년 3월 <예기작

6) 《관보》, 1910년 10월 7일을 인용한 노동은, 《한국민족음악현단계》(세광음악출판사, 1989), 152쪽 참고.

7) 《매일신보》, 1915년 9월 10일.

8) 《매일신보》, 1915년 9월 16일.

9) 1913년 2월에 다동기생조합·광고기생조합을 비롯하여 이후 시곡기생조합·신창기생조합·평양기생조합·전주예기조합·진주기생조합·평남 의주예기조합·인천용동기생조합 등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10)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한길사, 1995), 558~559쪽.

부 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등을 발표하여 권번들을 통제하고 있었다.¹¹⁾ 더욱이 민악을 통합문화예술로 창출해 온 神廳이나 才人廳의 문화를 1905년 4월 〈巫卜雜術禁止令〉으로 약체화시키고, 1910년 이후에도 민악의 통합문화예술들을 왜곡시켰으며,¹²⁾ 1911년 7월 〈사찰령 시행규칙〉과 1915년 8월 〈포교규칙〉에 의하여 이들의 문화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었다. 대신, 일본의 천조대신과 명치천황을 祭神으로 삼은 남산의 神社를 비롯한 전국에 일본의 신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신사에서 제전악인 키비가쿠(吉備樂)과 함께 천황에 대한 요배를 하기 시작하였다.¹³⁾

또 일제는 한국음악을 停滯의인 봉건시대의 옛 것(舊歌·舊劇·舊樂 등)으로 보고, 일본적인 형태의 새 것(新歌·新劇·新派劇·新樂·新音樂)을 지향토록 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지향적인 작품개량이나 엔카(演歌·艶歌)를 비롯한 일본어 학습과 일본국가(國歌)·쇼오카(唱歌)·춤과 사미센(三味線)·산쿄쿠(三曲) 등의 일본음악과 춤을 新樂으로 지향케 하였다.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도 한국음악과에 舊樂科·吹樂科·新樂科로 나누고, 한국음악을 구악으로 양악을 신악으로 구분하였다.¹⁴⁾

한편, 1907년 전후까지 演戲場·遊戲場·舞童演劇場·舞蹈劇場 등으로 혼용하던 공연장 명칭이 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장이란 이름으로 점차 일반화되었다. 일제는 장안사나 연흥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공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극이나 음악회, 또 연극 등의 폐해성을 총독부가 비판하며 폐지를 유도하고 각 공간마다 검문 검색하였다.¹⁵⁾

(3) 일본 음악교육의 강제화

-
- 11) 《매일신보》, 1913년 2월 21일, 1918년 11월 19일, 1916년 3월에는 〈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창기건강진단 시행수속〉과 동시에 발표하여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 12) 1913년 10월 28일 장안사에서 공연한 무당놀이를 조선총독부가 ‘탕음’하다고 보아 주무자들을 소환하고 공연 금지시킨 것도 이 경우이다(《매일신보》, 1913년 10월 28일).
 - 13) 〈神社寺院規則〉(1915년 8월), 〈神社ノ祭式恒例式及齋戒ニ關スル件〉(1916년 6월).
 - 14) 조선정악전습소 사업보고서 내용은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보진재, 1974), 69~70쪽을 참고.
 - 15) 《매일신보》, 1919년 9월 15일~29일.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한국민을 천황폐하의 ‘충량한 국민’으로서 ‘심정을 순정케 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창가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다. 이러한 창가교육특징은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교과서로 편찬한 《신편 창가집》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두 41곡을 제1·2편의 일본어 창가와 제3편의 조선어 창가 등 세 편으로 구분하였지만, 완벽한 일본 창가집이다. 더욱이, 제1편의 6곡은 의식창가로서 일본국가인 <키미가요>(君が代)·<1月1日>·일본건국 기념일인 <키겐세츠>(紀元節)·일본천황 탄생일인 <텐조오 세츠>(天長節)·천황의 분부를 봉답하는 <초쿠고 호오토오>(勅語奉答)와 졸업식 노래인 <卒業式> 등으로 일본정신과 정서화로 일관된 창가로 1945년 해방까지 강요하였던 노래들이다. 1910년부터 1922년까지 제1차 <조선교육령> 기간에 나온 조선총독부의 창가집들은 1910년의 《보통교육창가집》, 1914년의 《신편창가집》, 1915년의 《羅馬字 新編 唱歌集》, 1920년 4개 학년의 《보통학교창가서》 등이 모두 그러했다.

한편, 사립학교는 민족교육의 산실이었던 만큼 민족정기를 표현하는 창가교육이 이루어져 통감부와 총독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창가탄압은 극심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사찬으로 간행된 창가집·음악도서 20여 책 가운데 후쿠이 나오아키(福井直秋)의 《音程敎本》을 제외한 19책이 한국인들이 발행한 것들이었다. 19책중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음악교과서는 김인식의 《교과적용 보통창가집》(1913), 《풍금독습중등창가집》(1913), 동명학교 편 《최근창가집》(1913), 광성중학교 편 《최신창가집》(1914), 안애리 《창가집》(1915), 이상준의 《보통악전대요》(1916), 홍난파의 《통속 창가집》(1917)·《간이 무답행진곡집》(1917), 이상준의 《최신 창가집》(1918) 등이었다. 김인식의 《교과적용 보통창가집》의 경우 편찬목적은 제1차 <조선교육령>의 음악교과목표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하였다. 또 홍난파의 《통속가곡집》은 일반 청년남녀용 14곡으로 첫 번째 일본국가를 제외하곤 서양가곡을 일본에서 번역하여 펴낸 유명 창가집을 다시 번안한 창가집이었다. 이상준의 《최신 창가집》은 일본국가 등 의식축일창가 5곡을 일본어로 게재할 정도로 한계를 가진 창가집이다.

(4) 민족음악의 전개

한국근대음악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점은 노래를 운동으로서 불렀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 이전의 노래들은 애국계몽가와 항일의병가로서 계몽과 국권회복을 노래하였지만, 1910년 이후로는 민족적 울분과 반일독립의 애국적인 노래(창가)로 민족음악의 중심이 되었다. 이미 일본도 메이지(明治)시기부터 쇼오카(唱歌)나 온가쿠(音樂)가 일본국민으로서 國調를 일으켜 새로운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보급하고 있었다.

한국의 창가들은 테라우치총독이 1911년 7월 1일 각도 장관회의 시정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립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을 반대하는 불량창가이자 위험한 노래”였으며,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허용하지 않는 일이니 취체상 가장 주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은 실력으로서 이를 진압할 것이고, 이 때문에 오직 조선인만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한 노래들이었다. 그만큼 한국의 창가들은 애국창가이자 독립을 고취하는 노래들이었으며, 학교와 교회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항일운동 현장에서 불리워졌다.

따라서 한국의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음악을 가장 엄한 불경죄로 다스리기 위하여, 1912년 3월에 制令으로 정한 <조선형사령>이나 <조선민사령>을 기존의 <보안법>이나 <출판법> 등과 함께 적용하여 2중으로 처벌하였다.

창가집 사건은 일제가 <출판법>과 <보안법>은 물론 <조선형사령>까지 적용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경기도 개성 韓英書院의 창가집 사건, 함남 금야군의 사립문명학교의 창가집 사건, 함북 경성군의 사립온천학교의 창가보급 사건 등이 그것으로, 이 중에서 1917년의 한영서원 창가집 사건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다.¹⁶⁾ 한영서원은 尹致昊가 개성에서 경영하는 학교로서 이 학교 졸업생이자 소학과 교사로 있던 신영순·백남혁과 서기 오진세, 음악과 교사 정사인, 그리고 권사 이경중들이 애국창가집을 발행하고 보급하였다고하여 1917년 9월 <조선형사령>에 의한 불경죄와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고 징역과 구류처분을 받은 사건이 바로 ‘한영서원 창가집사건’이었다.¹⁷⁾ 한영서원 창가집은 한영서원은 물론 같은 지역의 호수돈여숙, 그리고

16) 박우영, 《조선음악사》 1하(예술교육출판사, 1985), 71쪽.

17) 京畿道 警務部報告, <警高機發 第527號>, 不穩者 發見處分 1件, 1915년 11월 13일.

남북예배당 및 그 밖의 동지들에게 보급되었다. 바로 이 창가집엔 일제가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통제한 〈영웅 모범〉·〈경부철도〉·〈한양가〉·〈대한혼〉·〈애국가〉·〈선국교〉·〈구주전란〉 등 조선총독부 금지곡 등이 수없이 담겨져 있었다.

창가사건은 이들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진국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애국적인 노래들이 불리워졌다. 1914년 4월엔 배화여학교에서 학생들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존하세”라는 애국가를 “왜국사람 왜국으로 기리 망하세”로 ‘노가바’(노래가사 바뀌부르기)하면서 수업을 거부하였다. 또 1916년 강원도에서 불온 창가집이 발견되었다는 경찰보고를 보아도 당시 강원도에 항일애국의 노래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한편 1914년 북간도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의 광성중학교에서 펴낸 등사판 《最新唱歌集 附 樂典》은 모두 153곡의 애국노래와 악전을 음악문답으로 소개한 총 250여 쪽의 창가집이었는데, 〈치안법〉위반의 금지 창가집이 되었다.¹⁹⁾ 그러나 이 창가집은 중국 동삼성(만주)에 망명한 동포들이 1911년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연길) 소영자에 설립한 민족학교인 광성중학교가 중심이 되어 만주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불리워졌다.²⁰⁾

이 밖에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독립군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교포와 청년학생들까지 널리 불리워졌다. 또 〈신흥학우단가〉를 비롯하여 〈봉기가〉·〈용진가〉·〈국치추념가〉·〈작대가〉·〈운동〉·〈격감가〉 등이 만주의 항일 지역에서 널리 불리웠다. 미국 망명동포들이 1913년에 창간된 《신한민보》에서는 “기억해 아날음, 못니칠 치욕을”과 같은 항일애국시가를 발표하여 ‘노가바’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 또 1915년 같은 신문에 “저 먼 운소 중에, 펄펄

〈京畿地方法院 刑事部 裁判記録〉, 1917년 9월 5일.

18) 조용만·송민호·박병채 공저, 〈일제하의 한국저항문학〉(《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음사, 1982), 249·252쪽.

19) 재간도 일본총영사관 산하 외사경찰이 1914년 외무성 외무대신(加藤高朋)에게 보고한 〈最新唱歌集 發賣禁止ニ關スル件〉에 의한다.

20) 수록된 애국노래들은 〈국기가〉·〈혈성대〉·〈애국〉·〈조국생각〉·〈망향〉·〈대한소년기개〉·〈대한혼〉·〈자유〉·〈한반도〉·〈건훈절〉·〈독립〉·〈단군〉·〈민충정공 추도〉·〈학생 추도〉·〈조선혼〉·〈영웅 추도〉·〈대한제국국가〉 등이었다.

21) 박성빈, 〈8월 29일〉(《신한민보》, 1917년 9월 14일).

높이 날며, 만세 영광 자랑하리, 우리 국기로다”라는 애국시가를 비롯하여 같은 해 6월 17일자에는 음악가 이성식이 ‘도산선성이 저술한 노래’ 가사를 〈격검가〉란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10년 4월 발매금지와 함께 압수당한 〈중등창가〉의 저자로서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1910년대 국내의 학교와 교회는 물론 국외에서 불리웠던 노래들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항쟁기 노래의 줄기를 받아 민족적 울분과 반일독립운동 노래로 발전해 나갔다.

한편, 일제의 한국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전통적인 음악제도의 약체와 해체는 물론 그 음악들도 금지곡으로 통제받았다. 그 음악들은 바로 민족정신과 함께하는 민족정서의 근원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역사적인 민요를 비롯하여 기악작품들을 발굴정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은 시대적이면서 민족적인 요구이었다. 이러한 시대적·민족적 요청에 공헌한 음악가가 김인식·이상준 등이다. 김인식이 1914년 서울의 창문당에서 발행한 《朝鮮 舊樂 靈山會上》은 당시 민간 기악곡으로 널리 알려진 양금보로 된 고악보를 양금의 구음인 육보와 함께 양악보로 작업한 최초로 악보이다. 이리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양악문화와의 만남을 열어 주었다. 또한 이상준은 《조선속곡집》(상권, 1913), 《조선잡가집》(1916), 《유진 조선잡가집》(1918) 등 3권의 민요를 비롯한 잡가집을 5선 양악보로 발행하였다. 즉, 우리 나라 서도민요와 남도민요 그리고 경기민요 등 전국의 민요를 가사는 물론 오선악보와 숫자악보로 채보하므로써 우리 민요에 대한 깊은 조예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²²⁾ 이들 외에 최창선 편의 《가곡선》(1913), 김학규 편의 《조선음률보》(1916), 미상의 《조선신구 신가총서》(1916), 송기화 편의 《정정 증보 신구잡가》 등이 출판됨으로써 우리 음악의 정리와 역보 및 채보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민족기악양식인 ‘산조’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공식화될 정도로 산조연주가 빈번해지면서 산조시대가 변함없이 전개되었다. 특

22) 이상준의 〈아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리랑〉과 장단(6/8)과 시김새 처리가 다른 우리식 민요로 채보한 작품이다. 현재 부르고 있는 〈아리랑〉은 고가 마사오(古賀政男)가 일본식으로 작곡한 4분의 3박자의 〈アリランの唄〉이다.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웅진출판, 1996), 109~120쪽.

히 김창조가 1915년 전후로 전주와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로 순회공연을 하면서, 가야금 산조는 물론 거문고 산조와 젓대 산조, 그리고 가야금 병창·단소·해금 등 전 분야의 기악과 성악이 공연되었고, 1917년 장별제 산조를 완성하여 20년대 광범위하게 산조의 시대를 열어갔다.²³⁾ 즉, 1890년대 중반이후 시나위나 봉장취 등의 기악곡과 판소리 장단에서 발전시킨 민족기악형식인 산조가 김창조에 의하여 장별제 산조로 정형화되어, 20년대 산조시대가 본격화되어 우리나라 민족음악발전에 전환을 이루었다.

한편, 일제의 조선문화예술의 약체화·해체화속에서도 기층민중에 뿌리를 둔 판소리와 창극을 유지·보존하려는 운동이 펼쳐졌다. 명창 김창환과 이동백이 앞장서서 1915년 3월 16일에 ‘경성구파배우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들은 “장래 남의 치욕을 면하고 修身 잘하여 조합의 발전기초를 위함”이라고 그 설립취지를 밝힐 정도로 안팎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자기 나라 문화를 치욕스럽게 여기도록 몰아가는 일제에 울분을 삼키면서 조합 발전을 모색하였다.²⁴⁾ 그들은 광무대와 연흥사에 속하는 남녀 예술인들과 기타 여러 예술인들을 영입하여 조합장에 장재옥을 선임하고 자신들은 지도선생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경성구파배우조합’은 1928년에 창립된 ‘조선음악협회’, 1930년 여름에 창립된 ‘조선음률협회’, 1934년 5월에 창립된 ‘조선성악연구회’로 맥을 이어가면서 한국음악의 부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²⁵⁾

2) 제2기－문화통치기의 음악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3·1운동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계에서는 노동운동·농민운동·학생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국외에서는 독립군의 무장투쟁, 상해임시정부의 투쟁

23) 민족음악연구소 편, <유산연구, 김창조(金昌祚)와 가야금산조>(《조선음악》1기,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40~48쪽.

24) 《매일신보》, 1915년 4월 1일.

25) 한편 양악계는 김영환·홍난파·김형준 등이 중심이 되어 1919년 10월에 ‘경성악우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독립청원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노래들이 야말로 애국가이자 항일가이었으며 독립운동가였다. 더불어 약체화되어가는 민족 전통음악의 ‘부활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펴면서 정치선전을 강화하였다. 1920년 4월 총독부는 관방에 활동사진반을 두어 전국 각지로 순회영사회를 실시하여, 한국 민족춤이나 이왕직 아악부의 연주광경을 보여주어 한국인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정치선전을 하였다.²⁶⁾ 또 1921년 4월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궁내성 악부 부속의 아악연습소 강사이었던 타나베 히사오(田邊尙雄)는 이왕직아악대·단성사·평양기성권번·경성 명월관을 차례로 방문하고는 조선아악의 존치와 대우개선을 조선총독부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하였고, 이왕직 아악과 궁중 정재를 필름에 담아 전국순회영사회에서 소개하였는데 이것도 총독부가 한국음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정치선전이었다.²⁷⁾ 이 모든 것은 일선융화를 앞세운 선전책이었으며, 실제로 타나베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일선융화’를 위한 활동이었다.²⁸⁾

일제가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일선융화를 위한 정치선전으로 이용한 곳이 바로 1920년 7월에 준공한 경성상업회의소와 1927년 관영방송국인 경성방송국(JODK) 개국이었다. 경성상업회의소의 2층에 위치한 ‘경성공회당’은 종로의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과 함께 음악회 개최장소로서 유명해졌다. 경성방송국 역시 정치선전 강화책의 하나로 세워진 방송국이었다. 경성방송국은 명창대회를 열거나, 명창들을 불러 방송하므로써 “조선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1927년 8월 12일부터 5일간 李東伯·申錦紅·姜笑春·李花中仙·金秋月 등 5인을 하루 한사람씩 불러 방송하였으며, 신문들은 이를 “한국 성악을 대표한 이들의 소리가 전파에 싸이여 천하에 퍼지게 되는 것을 全鮮의 조선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한다더라”고 썼다.²⁹⁾

이외에 경성일보사 내 來靑閣도 새로운 공연장으로 부각되었다.

26) 김규환, <식민지하 조선에 있어서의 언론통제의 연구>를 인용한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40쪽에서 재인용.

27) 田邊尙雄, <朝鮮音樂日記>(《音樂と蓄音機》5, 東京, 蓄音機世界社, 1921), 61~86쪽.

28) 田邊尙雄, 위의 책, 1~5쪽.

29) 《동아일보》, 1927년 8월 12일.

1920년대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경성공회당·래칭각 등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로는 경성악대, 연희전문학교 음악부, 여화여전 합창부, 경성의전음악부, 숭실대학 관현악대와 찬양대, 경성제국대학 관현악단, 研樂會, 경성하모니카구락부, 배재고등보통학교 음악부, 조선가요협회와 그밖에 동경음악학교 동창회 등이 있었다. 특히, 연희전문은 1929년 현재명이 취임하면서 관현악부·합창·독창·바이올린독주·4중창단 연주가 많아졌다.

이 시기에 활동한 피아노연주가로는 김영환·韓琦柱·朴慶浩와 이화여대출신의 金合羅·尹聖德·金愛利施·金元福·高鳳京·스투테니 등이 있었고, 바이올린연주가로 洪蘭波 외에 桂貞植·洪載裕·安柄昭·金載勳 등과 와세다 출신의 蔡東鮮이 있었고, 첼로연주가 安益泰가 후반기에 부각되고 있었다. 소프라노는 야나기 카네코(柳兼子)·尹心惠·宋聖心 등이 있었고, 테너로는 安基永·權泰浩·玄濟明, 바리톤의 尹基誠과 金文輔 등과 崔虎永·金恩實·金活蘭·蔡奎燁·朴泰元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중진 음악가들로는 백우용·정사인·김인식·이상준·金亨俊 등이 있었다. 선교회사 의사 출신으로 룩츠(Mrs Lutz, 소프라노)부인·솔토부인·붓츠(Boots)부인(세브란스병원 치과 의사, 바이올린과 피아니스트)·스미스(Smith) 등이 활동하였다. 이 중에서 평양 출신 음악가들은 현재명·박경호·朴元貞·金世炯·金東振·朴泰俊·車在鎰·권태호 등이었다.

이 밖에 유명 외국인들의 내한공연도 있었는데, 유명한 바이올린의 연주가 들인 F. 클라이슬러(1923. 5. 23, 경성공회당)·하이페츠(1923. 11. 5, 경성공회당)·짐발리스트(E. Zimbalist, 1924. 11. 25, 경성공회당)를 비롯하여 러시아 슬바반 스카야 합창공연(1927. 9. 23, 조선극장)과 일본의 소프라노 세키야 토시코(關屋敏子, 1927. 5. 29, 경성공회당)와 일본 해군군악대연주(1927. 4. 19, 조선총독부청 앞 광장) 등도 있었다.

전통음악분야는 이왕직아악대, 조선정악전습소, 조선권번·한성권번·달성(대구)권번·광주권번·공주예기상조회·평양기성권번·춘성권번(원산) 등 전국 각지의 권번, 광무대, 이화여전 조선음악부, 한양구락부, 공주음악협회, 인천의 朝鮮古正樂會, 朝鮮樂研究會, 朝鮮音樂研究協會, 朝鮮音樂協會³⁰⁾, 청주 음악구락부, 朝鮮音律協會 등과 판소리 명창 李東伯·宋萬甲·金昌煥·金昌

龍·李素香·朴綠珠·金楚香·曹學珍·金錄珠·李中仙·申錦紅·姜笑春·李花中仙·金秋月·劉公烈·姜南中을 비롯하여 고수와 전통춤의 韓成俊, 가야금병창 沈相健·吳太石 등이 조선극장·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 천도교백년기념관 등에서 활동하였다.

비평가로 활동한 음악인들로는 홍난파·安廓·박경호·김영환·申孤松·엄홍섭·양창준·金泰午·洪鍾仁 등이 있었다.

일제는 1910년 이전에 한국학생들의 일본유학을 수용한 데 이어, 20년대부터는 관비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친일지식인과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이용하였다. 이 중에서 음악가들은 소프라노 尹心惠·韓琦柱, 바리톤 金文輔·朴桓秉 등이 일본의 관립 동경음악학교 사범과에 유학하였으며, 이들은 이후 탈민족적 성향의 음악활동을 전개한다.³¹⁾

한편, 재경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1920년 2월 11일에 京城樂友會가 조직되었다. 일본인 이이다 고오자부로오(飯田興三郎) 등이 발기인들이 되어 “음악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³²⁾ 그리고 1929년 2월 22일에 창립한 조선가요협회는 일제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들여 민족정서의 개량책으로 조직한 단체였다. 김영환·김형준·정순철·안기영 등이 참가하여 활동하였다.³³⁾ 당시 신문기사에 한국전통음악인 〈수심가〉·〈아리랑타령〉·〈춘향

30) 조선음악연구협회와 조선음악협회는 조직 구성원에서 다르다. 전자는 한국음악을 부활하자는 목적으로 명창분야의 성악과 기악으로서 가야금·양금·단소·거문고·해금·통소·장고 등의 전통음악인들이었지만, 후자는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에 취미를 가진 인사로 한국음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조선일보》, 1927년 11월 9·11일, 1928년 2월 13·19·20일.

31) 노동은, 〈삶과 죽음의 월계수—윤심덕〉(앞의 책, 1996), 361~371쪽.

32) 경성악우회 회장에 니와 세이자부로오(丹羽清次郎), 간사에 張德昌 외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으며, 강사로 金永煥과 시미즈 칸조오(清水幹三) 등이 있었다. 또, 정회원은 모두 23명으로 장덕창·柳壽熙·崔虎永 등 세명이었고 나머지 모두는 일본인이었다. 강사 김영환은 경성악우회의 중심인물이었다. 李有善, 《韓國洋樂百年史》(중앙대학교출판부, 1976), 164쪽.

33) 발기동인으로 이광수·주요한·김정식(소월)·변영노·이은상·안석주·김억·양주동·박팔양·김동환·김영환·안기영·김형준·정순철·윤극영 등이 있다. 작곡부는 김영환·김형준·정순철, 선전부는 안기영·안석주·김동환이었다. 한국의 전통음악분야 인사가 없는 것도 이 단체를 통한 일제의 통치선전강화이었다.

전〉 등이 悖歌이고 희망이 없는 淫蕩哀願의 소리(聲)이니 이러한 나쁜 가요를 척결하고, 조선가요협회의 문화운동이야말로 “조선의 신평명이요 신희망”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아도 일제의 양악 진영과 전통음악 진영간의 분할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한국 노래의 일본식으로의 개량을 통해 일선 융화·내선일체의 신민화를 꾀하려 한 것이었다.

일제가 아악보존이나 민악의 개량책에 의하여 한국음악을 약체화시키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문화 추구의 열망과 일제의 양악육성책에 고무된 양악계는 1930년 2월 11일 드디어 본격적인 전문가 조직체를 창립하였다. 바로 朝鮮音樂家協會의 창립이었다. 초대이사장에 현제명, 이사에 홍난파·김영환·채동선·안기영 등이었고, 창립발기인으로 현제명·홍난파·김영환·채동선·안기영·최호영·독고선·홍재유·윤성덕·김인식 등이 참여하였다.³⁴⁾

1930년 카프계열의 신고송과 민족계열의 홍난파간의 ‘음악의 계급의식’을 둘러싼 대논쟁으로 음악계는 분열되기 시작하였다.³⁵⁾ 일제강점하의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전개된 이 논쟁은 그 내용의 평가를 떠나서, 음악계 여론분열을 노린 일제의 분열정책의 결과였다. 이후 민족개량운동에 앞장선 홍난파를 경성방송국 경성방송국 산하의 경성방송관현악단 지휘자로,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으로, 조선음악협회 평의원으로 선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⁶⁾

34) 李有善, 앞의 책, 176쪽. 조선음악가협회는 1926년에 붓츠부인이 지휘자이고 박경호 등 15~16인의 단원으로 구성된 中央樂友會과는 규모나 수준에서 달랐다. 조선음악가협회는 30년대 음악계를 주도하고, 40년대초 일제친일단체인 조선음악협회와 같이 많은 영향을 미친 조직체였다.

35) 사회적인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양찬준·엄홍섭·신고송 등이 1930년 8월에 《음악과 시》제1호 창간호를 내면서 프로음악운동을 본격화 시킨다. 여기에 신고송의 〈음악과 대중〉에 대한 내용으로 홍난파가 《동아일보》, 1930년 1월 29·30·31일·2월 1일 등 4회에 걸쳐 〈음악과 계급의식〉이란 주제로 신고송을 비판하자, 신고송은 같은 신문 3월 12·13일로 〈음악의 계급의식에 대하여—홍난파씨의 논을 반박함〉으로 반비판을 제기하자, 홍난파는 3월 17~24일까지 8회에 걸쳐 같은 신문에 〈음악의 계급의식에 대하여—신고송씨의 반박에 답함〉이란 주제로 재비판이 지속되었다. 노동은, 〈30년대, 카프음악운동〉(앞의 책, 1989), 171~176쪽.

36) 홍난파의 친일행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노동은, 〈우리역사쓰기, 참인가, 거짓인가?〉(《노동은의 두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 2001), 130~150쪽.

(2) 일본음악교육의 강제화

1920년에 들어와 총독부는 경성사범학교 교육연구회로 하여금 9권의 소학 교용 《초등창가》를 발행하게 하였다.³⁷⁾ 특히, 1925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보통학교 보충창가집》은 보통학교 창가과의 보충교과서로 편찬할 목적으로 발행했을지라도, 3·1운동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첫 책으로 나온 관제 음악교과서였다. 6개 학년을 한 책에 담아 모두 146쪽인 이 책에서는 일본어곡과 한국어곡의 비율이 39곡 대 21곡(65 : 35)으로 전례에 없는 변화가 있어 보인다. 또, 그 제목도 〈昔脫解〉·〈成三門〉·〈금강산〉·〈백두산〉·〈고려〉·〈백제〉·〈경성〉·〈부산향〉 등 한국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학년마다 배치시켜 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 요나누키 장음계에 2박자가 주류인 일본정서적 노래일 뿐으로 한국 민족의 정서가 고려된 창가교과서가 아니었다. 그만큼 일제의 교육정책은 교묘하였다.

일제는 문화정치기에도 변함없이 일제통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사찬 간행물은 〈치안유지법〉이나 〈출판법〉으로 금지처분을 내렸다. 1919년부터 1931년간 사찬 음악도서 간행물은 대략 35책이었다. 1930년에 금지처분된 도서 중에는 이상준이 1924년에 출판한 《풍금독창 중등창가집》이 있었고, 盧永稿가 1923년에 간행한 《근화 창가집》도 30년대에 금지처분시켰다.³⁸⁾

(3) 민족음악의 전개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는 통치체제를 무단정치에서 기만적인 문화정치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억눌렸던 음악계도 민족음악 부활운동을 불길처럼 펼쳤다. 3·1운동 당시 〈독립가〉·〈대한제국 독립창가〉들이 유인물로 군중에게 배포되었다.³⁹⁾ 평양에서는 수천 명이 “대한

——, 〈홍난파-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친일과 99인》 3, 도서출판 돌베개, 1993), 109~116쪽.

37)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補充唱歌集》(京城: 朝鮮總督府書務府印所, 1925).

京城師範學校 教育研究會 編, 《初等唱歌》第三學年用(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2).

——, 《初等唱歌》第六學年用(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4).

——, 《初等唱歌》第一學年~第六學年用(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5).

38) 朝鮮總督府, 《禁止單行本目錄》(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229쪽.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학도가〉·〈혈성가〉는 물론 〈광복가〉·〈3·1운동가〉 등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⁴⁰⁾

그리고 민족과 계급해방을 제창하는 창가집도 이 시기에 발행되어 보급되었다. 대표적인 노래집이 金漢山과 金希山의 《가곡선집》이다.⁴¹⁾

한편, 전남 완도읍에서 뱃길로 한 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 所安島에서도 항일투쟁을 전개하며 애국적인 노래이자 항일노래들이 불리워지고 있었다.⁴²⁾ 소안도에서는 1920년 4월 宋乃浩가 중심이 되어 배달청년회가 결성되고, 1921년 2월 14일 토지계쟁사건에서 승소한 데 이어, 1923년 3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전조선청년당대회 참석 등의 과정에서 1927년 소안학교가 폐교조치되자, 소안도 사람들은 물론 국내와 일본에서도 소안학교폐쇄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조선총독에게 소안학교 문제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이 될 정도였다. 1927년에 소안학교가 폐교되자 소안도 사람들이 세운 야학이나 서당에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학도가〉·〈부모은덕가〉·〈수학여행〉·〈행진곡〉·〈독립군가〉·〈애국가〉·〈정몽주추도가〉·〈망향가〉·〈소년단가〉·〈애국창가〉 등 국내외 항일노래집에 나오고 있는 노래들이었다.

국내외 애국인사들의 음악운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남 진주에서는 기생독립대를 만들어 3·1운동을 펼쳤고, 수원기생조합은 수원경찰서 앞에서 김향화를 선두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명창 安基玉과 金世炯도 3·1운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가야금 산조의 대가이자 神廳 출신이었던 안기옥은 26살 되던 1919년 광주에서 독립선언서 1만여 장을 인쇄하여 뿌린 혐의로 6개월간

39) 이정은, 〈3·1운동기 학생층의 선전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35·40쪽.

40) 이 밖에도 〈3·1절 노래〉·〈3·1절가〉·〈3·1행진곡〉·〈독립운동가〉·〈기원절 경축가〉를 비롯하여 만주 전역의 독립군들이 불렀던 항일독립가인 〈독립군가〉·〈소년건국가〉·〈승리행진곡〉·〈고난의 노래〉·〈광야를 달리는 독립군〉·〈추도가〉·〈항일선진가〉·〈최후의 결전〉·〈혈전의 때는 왔도다〉·〈전진가〉·〈혁명군 행진곡〉·〈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41) 필사본 《가곡선집》, 36쪽(24곡)은 1990년에 필자가 발굴하여 월간 《다리》 1월호, 통권 제27호((주)다리, 1990), 306~313쪽에 발표하였다. 발행연도는 미확인되었지만 발행지는 상해의 대동민보사가 운영하는 대동인쇄국이었다. 이 글은 노동은, 앞의 책(1996), 317~328쪽에 다시 게재하였다.

42) 노동은, 〈소안도 사람들의 민족음악운동〉(위의 책, 1996), 329~336쪽.

정역을 살았다.⁴³⁾ 33살 되던 1926년에는 광주시청에서 일제를 환영하는 행사의 출연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3개월간 구치생활을 하였다. 작곡가 김세형은 평양숭덕학교 4학년에 재학중에 안창호 선생이 지은 애국가를 부르며 3·1운동 시위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광성고보의 안익조(안익태의 형), 숭실중학의 김영제, 숭덕고보의 이기철 등과 제2차 독립시위계획을 모의해 1919년 10월 10일 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세형은 1년동안 일본경찰을 피하여 이후 음악가로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갔다.

안기영은 여화여자전문학교에 재직하면서 민족적인 선율로 신조선음악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9년에 <그리운 강남>이 그것이다. 이후 30년대에 《조선민요합창곡집》 발간과 40년대 초반 민족가극운동을 전개하였다.

3) 제3기 - 전시체제하의 음악

(1) 한국음악사회 통제와 친일파 육성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1945년 8월 해방에 이르는 9년간을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를 전쟁수행기지로 삼았다. 대륙진출을 위하여 한국을 병참기지화시키고 전시체제하의 파소적 통치를 강화하였다. 군수물자의 생산현장에서 ‘음악’을 생산을 독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또 한국은 일본정신에 의한 충량한 신민으로서 황민화가 강제화되고 있었다. 음악은 바로 한국의 병참기지화와 황민화정책을 선동·고무시키는 데 동원된 일제의 으뜸가는 수단이었다. 전장과 경제현장, 학교, 음악회장, 각종 집회, 신문, 방송, 다방, 레코드 등 음악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이용되었다. 따라서, 전시체제하의 제3기는 일본음악체제로 전 한국의 소통구조를 장악하였으니, 황민화는 다름아닌 皇音化이었다.

일제는 음악소통구조를 황민화정책으로 장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서 먼저 음악계를 정비·조직해나갔다. 1937년 조선문예회, 1938년 국민정신총

43) 노동은, <음악가들과 3·1절>(위의 책, 2001), 329~333쪽.

동원조선연맹,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년 조선음악협회, 1942년 경성후생 실내악단, 1944년 대화악단 등의 관제단체가 연달아 결성되고 지속된 것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서로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언제나 같은 지배체제하에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조선문예회는 1937년 5월 2일 경성제국대 타카기(高木市之助)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최남선·이광수를 비롯한 문인들과 김영환·박경호·윤성덕·이종태·하규일·함화진·현제명·홍난파 등 음악인들과 함께 기타 일본인을 포함하여 17명을 회원으로 조직된 친일단체였다.⁴⁴⁾ 조선문예회는 하규일과 함화진 등 전통음악계도 선임하여 1929년에 창립된 조선가요협회보다 훨씬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악단과 문단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되었다는 점에서도 황민화정책의 핵심단체였다.

시국대응 전선 사상보국연맹은 경성관찰소장인 사게 요시로오(提良明)와 경성지부 간사 현제명 등이 중심이 되어 1938년 7월 24일에 결성하였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1940년 10월 16일 “국체의 본의에 기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하며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신동아 질서 건설에 매진할 것”을 취지로 일본에 이어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조직한 최대의 조직체로서, 총재에 총독, 부총재에 총독부 정무총감, 문화부장에 야나베(矢鎬永三郎)를 비롯하여 김억 등의 문화위원 외에 음악위위원으로 히라마 분쥬(平間文壽)·오바 이사노스케(大場勇之助)·홍난파·박경호 등 68명이었으며, 5개 부서 중 문화부가 문화협회를 조직하고 산하의 조선음악협회를 관장하며, 그 연락계로 히라마가 주관하였다.

조선음악협회는 1941년 1월 25일에 “악단을 통하여 직역봉공을 하고, 조선음악계의 신체제운동을 목표”로 조직한 최대의 친일음악단체이다. 회장은 쇼하라(鹽原時三郎) 조선총독부 학부국 국장, 고문은 야나베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과 미하시(三橋孝一郎)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이었다. 한국 음악인으로는 김관·계정식·김재훈·함화진·김원복 등이 이사로, 홍난파·김세형·이애내·임동혁·이종태·김영환·김메리 등이 평의원으로 참여하였다.

44) 노동은·이건용,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민족음악론》, 한길사, 1991), 308쪽.

이외에 함화진이 조선음악부장이었다. 조선음악협회는 1944년 7월에 개편되어 조선총독부 정보과장인 아버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사로서 일본인들과 함께 오바와 쿠로야마(玄山濟明, 현제명)가 새롭게 영입되었다.

경성후생실내악단은 “전시하의 전시하의 국민들에게 건전한 음악과 음악 자체의 예술성을 국민음악挺身隊로서 활동, 보급”하기 위하여 1942년 5월에 결성된 친일단체였다. 대표에 김생려, 단원으로 김성태·김천애·이인범·김태연·이유성·이인형·박평수·이용철·안성교·이강렬 등이 활동하였다. 이 악단은 1944년 5월에 쿠로야마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상무이사에 스즈키 칸이치로오(鈴木貴一郎)와 단원으로 김원복·이흥렬·정희석·나운영·이규봉·고영희·김학상·정영재·김영애·이종태가 맹활동하였다.⁴⁵⁾

대화악단은 1944년 10월에 “反국가적 음악을 축출하고 雄偉한 일본음악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친일단체로서 테너 윤두선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이흥렬·유은경·황학근·김완우·유광덕·이인구·우달순·박영하·송경신·오오야마(大山英雄), 모오리(毛利基盛)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2) 전시체제하 노래 및 음악교육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기부터 ‘내선일체’의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전면적으로 皇音化政策을 강행했다. 크게 두 가지로 황음화정책을 강행하였는데 그 하나는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 소통매체인 신문·잡지·라디오·레코드·영화 등의 매스미디어로 일본의 음악체계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노래’에 의한 황음화정책은 학교교육에 의하여 ‘皇國臣民된 情操를 함양시키는 데’ 걸맞은 가사와 곡조를 선정하여(소학교 규정 제26조) 강화시키는 방법과 음악지배계급에 의한 ‘가창지도대’를 만들어 사회교육화하는 방법이었다.

일제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음악교과목표를 ‘황국신민된 정조를 함양’시키려는 데 두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사범학교와 초등학교 등의 교재를 개편했다.⁴⁶⁾ 교과목적은 1938년에 발행한 《新制音樂要

45) 노동은·이건용, 위의 책, 308~310쪽.

46)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음악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모두 9권을 발행하였다. 1939년의 《みくにのうた》, 1939년 《初等音樂 第一學年用》, 1939년의 《初等

義》에 잘 나타나 있었다.⁴⁷⁾ 여기에서는 ‘황국신민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창가과가 결코 단순한 기능과가 아니고 魂의 교육, 정신 교육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혼’이란 곧 일본정신인 것이고 이 정신에 따라 음악교재가 선택되어야 함이 음악교육의 목적이자 교재론의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그 전형적인 예가 리츠(律)음계와 4/4박자로 된 일본국가 〈키미가요(君が代)〉이다. 전시체제하의 일제는 일본국가 〈키미가요〉를 제1국가로, 〈우미유카바(海行かば)〉를 제2국가로 지정하고, 모든 음악회를 비롯한 행사장의 개회는 제1국가로, 폐회는 제2국가로 부르도록 강제화시켰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교재 역시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조함양에 적절한 창가채택에 유의”하도록 개편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1940년의 《초등창가》는 1943년에 《초등음악》로 바뀌면서 학년당 20%(25곡 중)가 의식·군가로 편성된 반면, 동요적 창가는 극소수로 편성하였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연상시키는 가사나 악보가 하나도 없는 《초등음악》의 경우 전체 59%가 일본의 음계이고 나머지가 서양음계인데다, 박자도 4/4, 2/2박자 중심이어서 민족음악체계와 전혀 달랐으니, 초등교육에서 정서적 지배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한편 조선총독부와 음악지배계급과의 결탁에 의한 일본음악체제로 황음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① 가요정화운동, ② 시국가요창작보급, ③ 가창지도대에 의한 계몽운동, ④ 가창집 발간 등을 음악전문인이 권력체제와 합의하에 전개되는 황음화정책을 말한다. 가요정화운동은 황민화라는 시국적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여기에 총독부 관제단체인 조선문예회,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음악협회 등의 중요 역할이 있었다. 가요정화운동에서 가요는 “시국가요－애국가요－건전가요”이었고, 그것에 반하는 노래가 “퇴폐가요－반체제가요－불건전가요”로 분명하게 대비시켜 정화의 대상으로 삼아갔다.

音樂 第二學年用》, 1940년의 《初等音樂 第三學年用》, 1940년의 《初等音樂 第四學年用》, 1941년의 《初等音樂 第五學年用》, 1941년의 《初等音樂 第六學年用》, 1942년의 《ウタノホン一ネン》, 1942년의 《ウタノホン二ネン》 등이 그것이다.

47) 京城의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에서 발행한 《新制音樂要義》는 1938년 3월 11일에 조선총독부 검정필을 받았다.

당시 가요정화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가요들은 1927년 관영 경성방송국(JODK)가 개국한 다음부터 일본의 빅터·콜롬비아 지사와 폴리도르가 한국에 진출한 이래 30년대부터 국내 레코드사가 일본기술과 자본에 종속되면서 대량적인 소통구조를 형성, 전성기를 열어놓았던 가요들이었다. 또 2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금융공황과 농업위기 그리고 세계공황으로 일본의 자본주의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일본 대중을 폭발적으로 휘어잡았던 민요조의 고우타(小唄)인 <출범의 항구(出船の港)>, <당신 그림다(君戀し)> 등과 30년대 일본가요계의 우상인 코가 마사오(古賀政男)가 부른 <술이란 눈물인가, 한숨인가?(さけは涙かためいさか)>, 그리고 <여보 왜요?(あなた なんたい)> 등이 크게 유행했는데 이는 음악소통 전개가 일제와 같은 음악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홍도야 우지마라>(1935), <나그네 설움>(1938) 등 한국의 대중가요들은 30년대 후반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통치체제 앞에서 눈물과 애수·정한·사랑·이별·도피·한숨 등을 나타내며 대중적 삶을 압도시키며 그 시대를 적응해가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 대중가요는 1860년대부터 ‘엔카’(演歌)류로 불렸던 것이고, 1894년 이후 발음이 같은 ‘엔카’(艶歌)라는 용어와 혼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노래들을 조선총독부는 시국상황에 따라 정화의 대상으로 삼거나 때로는 묵인하고 있었다.

자연히 조선총독부나 한국대중가요계는 일본음악의 음계와 박자체제로 황민화를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친일가요(시국가요·신가요·시국가·애국가요 등)를 이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해 낸다. 작곡자 이종태·이면상·손목인·박시춘·전기현·정진규·한상기·이운형·김준영·김해송·이재호 등은 가수 고운봉·이규남·김영춘·옥잠화·이해연·남해성·김정구·남인수·장세정·백년설·이화자·이난영·김용환 등과 함께 <충후의남>·<정의의 사여>·<열사의 맹서>·<충후의 기원>·<정의의 행진>·<종군간호부의 노래>·<승전의 쾌보>·<사막의 환호>·<군사우편>·<동아의 여명>·<승전가>·<병원선 일기>·<보내는 위문대>·<정의의 행진>·<아들의 혈서>·<결사대의 안해>·<혈서지원>·<이천오백만 감격>·<장렬이인석 상등병>·<지원병의 어머니>·<반도의용대가>·<남아의의기>·<소년용사>·<전장의달>·<복지만리> 등의 작품을 선전하며 부르고 있었다.⁴⁸⁾

한편, 시국가요 창작 보급의 대표적인 예가 방송을 통한 보급이었다.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는 전시동원체제를 찬양한 대부분의 일본음악 특징을 지닌 작품을 모아 《가정가요》란 이름으로 발행하여 보급하였다. 여기에 박태준·홍난파·임동혁 등의 친일가요 작품이 널리 권장되고 있었다. 이광수는 박태준과 함께 만든 곡 〈지원병 장행가〉에서 한국청년들이 천황폐하의 명을 받아서 지원하라는 가사에다가 일본의 요나누키장음계와 2박자로서 작곡한 노래를 보급하고 있었다. 또 이광수가 작시하고 임동혁이 작곡한 〈애국일의 노래〉, 그리고 춘원이 작시하고 홍난파가 작곡한 〈희망의 아침〉은 모두 일본 음악으로서 “천황의 뜻을 받아 일장기 날리는 것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희망의 아침”이라고 노래하고 있었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 시작과 함께 전시체제는 긴박한 신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인 3,400만 명을 ‘감격적’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중개매체는 ‘국민가요’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 분야에 집중적인 문화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곧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만든 〈일역의 결의〉과 〈대동아 결전의 노래〉 그리고 〈충후반도의 노래〉·〈우리는 제국군인〉·〈어머니의 기원〉 등 모두가 신문·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3년 두 가지 중요한 음악총력전을 펼치는데, 하나는 가창지도대 운영과 또 하나는 ‘국민가집 발행’ 보급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개창운동이었다. 물론 가창지도대는 조선음악협회 소속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지만, 운영은 조선총독부내 사무국으로 옮긴 연맹이 주관하였다. ‘국민사기 앙양과 건전 정조를 일본정신으로 육성’하자는 취지 아래 ‘국민개창운동회’를 병설하여 1943년 초부터 연말까지 국민개창운동기간을 설정하여 전개하였다. ‘국민개창운동 정신대’라고 하는 가창지도대는 조선음악협회와 공동으로 산업전사가 있는 각 공장·광산·학교 등 연맹산하 현장을 찾아 음악회를 열었다. 국민개창운동의 두 번째 작업은 일본 정서로 애국적이고 건전한 《국민가집—우리들의 노래》(1941) 발간과 함께 일본에서 나온 《국민가요 명곡집》 등 각종 국민가요집의 공급과 지도였다.⁴⁹⁾ 그리고 전국에 36만 개

48) 노동은, 〈일제하 친일음반과 대중음악계〉(《현대사상연구》 9, 목원대 현대사상연구소, 1995), 135~150쪽.

班에 448만 명의 반원으로, 회사·은행·공장·광산·대상점·학교에까지 직장연맹으로 조직된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국민개창가집》의 작품을 확정하고 각 연맹원이 ‘중점적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선정·시달하였다. 물론 전부 일본어로 된 일본음악이었다.

매체 지배구조 역시 지금까지 노래에 의한 황음화정책과 달리 신문·잡지·라디오·레코드·영화 등 대중매체와 음악공간을 이용한 ‘황민화—황음화정책’이 실시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음악인들에 의해 일본음악체계가 정당화되어 갔다. 즉, 일제가 대중조작으로 일본노래를 이용하였다면, 전문음악인은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신문·음악공간을 자기 지분으로 병행시켜 일반 지식인뿐 아니라 자신들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신문의 경우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조선총독부 관제신문인 《매일신보》에 계정식·김관·김재훈·박경호·박용구·이면상·홍난파·히라마 분주 등이 일본정신과 그 음악체계를 정당화시키며 활동하였다.

1940년 4월 일본군부는 독일이 파리를 점령한 직후 독일을 모방하여 ‘신체제’를 수립하고,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치르기 위한 제국주의의 파쇼적 전시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 여기에서 “세계는 지금 신체제시대로 되었다. 세계의 신체제, 동아의 신체제, 일본의 신체제, 구주도 신체제에 있다”고 본 일본제국주의가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을 정당화시키며, 전시체제를 신체제로 정비하고, 문화예술계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시작하면서 조선음악협회가 결성되었다.⁵⁰⁾ 조선음악협회 뿐만 아니라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화악단, 대동아악단 등에 소속된 음악인들의 음악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 결국 식민본국의 지배체제와 사회적 힘의 매체로 외세의 음악체계를 이 기간에 더욱 정당화시켰다. 음악인들의 신사참배, 음악보국 연주활동 전개, 창씨개명한 이름 사용, 그리고 반식국적 음악과 음악인들을 스스로 숙정하였다. 내선일체를 구현시킬 수 있는 성전 부여 신궁에 음악인들의 참석, 예술부문을 망라한 관계자가 조선신궁 풍영료에서 연성훈련, 또는 태평양전쟁 제3주년을

49) 《國民歌謠曲集》(東京：新興音樂出版社, 1941).

50) 〈新らしき文化圖體の動き(새로운 문화단체의 움직임)〉(《三千里》, 1941년 4월호), 528~538쪽.

맞아 개최한 문화단체 필승결의선양대회에 20명의 조선음악협회 중진들이 참석하였다. 1944년 7월 26일에 ‘國歌奉納大會’를 조선음악협회 주최로 열려 일본국가를 봉납하고 총독부까지 시가행진하여 음악보국을 맹서하는 것들이 그것이다.⁵¹⁾ 또 음악보국주간 설정과 음악보국 음악회, 국민음악의 밤, 군가의 밤, 국민가곡 현상모집, 싱가폴 함락 전첩축하 대음악회, 총력양양 야외음악회, 국민개창운동, 국민합창 야외음악회, 국민음악연주회, 전함 헌납 음악보국의 실내교향악의 밤, 징병실시 감사 축하행사, 전함건조 기금헌납을 위한梨專추계음악회, 비행기헌납 음악대연주회, 후생음악주간 설정과 음악회, 군인원호대연주, 전국순회 결정음악회, 應徵士家族 위안음악회, 동원학도 위문음악회, 본토 결전 부민대회 음악회 등처럼 일제의 핵심적인 행사에 음악인들이 앞장 섰다. 그리고 황국의식과 시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선총행 등 취체규칙>(1944. 5. 8 공포)에 따라 음악인들의 자격 심사를 시행하여 기예증을 교부하는 등 악단 숙정을 단행하였다.⁵²⁾ 다른 한편으로 태평양전쟁 이후 음악도 전쟁의 무기로 삼고 ‘전시총력의 6대 방책’을 결정하거나,⁵³⁾ “불건전한 가요음곡을 보급시키는 것이 레코드의 죄과”으로 여기어 레코드 발매도 규제하였다.⁵⁴⁾ 그리고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성명으로 바꾼 소위 ‘창씨개명’한 음악인들이 40년대 벽두의 음악회 프로그램, 신문 등에 공식화되어 갔다.⁵⁵⁾

51) 《朝鮮年鑑》(京城：京城日報社, 1944), 228쪽.

52) 악단 숙정뿐 아니라 연예·창극·연극 등 모든 무대예술인에게 실시한 자격 인정시험은 곧 막바지 시국통제를 위한 숙정작업이었다. 음악인들에 대한 ‘음악기예가 자격증’ 시험은 1944년 8월 16·17일에 배재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53) 노동은, 앞의 책(1989), 160~161쪽 및 《朝鮮年鑑》, 228쪽.

54)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이 1941년 12월 14일 발표한 각 문화관계 단체에 발송한 ‘전시총력 6대 방책’은 ① 국민사기, 선양운동 ② 사상전의 수행 ③ 전시생활의 강화운동 ④ 전시생활 과학의 보급 ⑤ 예술오락의 동원 ⑥ 언론문예의 전시동원 등이 그것이다. 《매일신보》, 1941년 12월 14일.

55) 모리카와 준(森川潤, 홍난파), 쿠로야마(玄山濟明, 현제명), 카네시로(金城聖泰, 김성태), 나오키(直木興烈, 이흥렬), 하리모토(張本仁範, 이인범), 다쓰야마(龍宮天愛, 김천애), 스즈키(鈴木貴一, 이종태), 코오무라(香村實, 박경호), 카네야마(金山生麗, 김생려), 키야마 히데코(木山英子, 이영선), 이토모 미쓰요시(伊東光善, 윤광선), 다카시마(高島宗益, 고종익), 요시모토(義元仁亨, 이인형), 키시모토(岸本仁洙, 김인수), 토요하라(豊原東熾, 임동혁), 마루야마(荒山東日, 이동

한편 내선 일체된 국민으로서 일본국민음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본 전통음악인 시긴(詩吟)·와카(和歌)·찌시마(千島)곡·샤미센(三味線)에 맞춰 부르는 ‘고우타’(小唄)나 ‘나가 우타’(長唄) 그리고 샤미센과 더불어 일본 민족악기의 세 가지 대표적인 악기인 고토(箏)·샤쿠하치(尺八) 등에 얹힌 세 가지 악곡(三曲, 산쿄쿠) 등 일본음악이 조선음악협회 주최의 연주회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 교습소 등지에서 그 소통이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 군가 <미·영 격멸의 노래(勝ったぞ日本)>, 내선일체를 극명하게 표현했다는 무용시곡 <부여회상곡>, 그리고 조선군 보도부의 영화작품으로 육군 중위 林得一이 지휘한 <헤이타이 상(兵隊さん)>, 일본 제2국가로 명명되고 불린 <우미유카바(바다로 가면)>의 작곡가 노부토키 기요시(信時潔)와 이 시대 시인·가인으로 알려진 키타하라 하쿠슈우(北原白秋)의 합동작품인 칸타타 <海道東征>, 일본 제1세대 작곡대부인 야마다 코오사쿠(山田耕蓆)의 가곡 <탱자꽃>·<들장미>,⁵⁶⁾ 그리고 나카야마 신평이(中山晋平) 등의 작품들이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었다. 또 현제명의 가곡 <후지산(富士山)을 바라보며>, 윤두선의 군가 <일본정신>, 이유성의 트롬본 소품 <황성의 달>, 계정식의 바이올린 소품 <앗쓰島の 영웅에게 바치는 선율>, 임동혁의 <미국은 적국되고(アメリカは 敵國なり)> 등의 일본국민 음악이 창작·연주되었다.

일제는 전시체제하의 방공소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2년 전국에 걸친 ‘音感훈련’과 향상을 목표로 음악사회교육 확대와 경연대회를 하였다.

(4) 전문음악가들의 창작활동

1910년대 김인식·이상준·김형준 등의 창가풍의 가곡창작을 제외하면, 3·1운동과 함께 민족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동요운동·신민요운동·신한국 음악운동 등과 관련되어 근대풍의 가곡이 창작되었다. 백우용의 1921년 작품 <夕帆>(정경운 시)과 <석양의 조수>(정경운 시)를 비롯하여, 1922년 박태준의 <사우>(이은상 시) 등을 거쳐 30년대에 가곡창작시대가 만개되었다. 안기영의 <진달래꽃>(김소월 시)과 <마의태자>, 현제명의 <조선

일), 사쿠무라(作村甲洙, 한갑수), 타카다(高田清子) 등이 창씨개명의 예이다.

56) 야마다는 이때 일본음악문화협회장과 일본연주가협회 음악정신대 대장이었다.

의 노래>와 <고향생각>, 김동진의 <봄이 오면>(김동환 시)과 <가고파>(이은상 시)·<꽃구름 속에>(박두진 시), 홍난파의 30년대 전후작품 <봄처녀>(이은상 시)와 <봉선화>(김형준 시), 이흥렬의 <바위고개>(이흥렬 시), 김세형의 <벚노래>(이광수 시), 채동선의 <고향>(정지용 시), 김세형의 연가곡집 《먼길》, 김성태의 <말>(정지용 시)과 <산넘어 저쪽>(정지용 시), 김순애의 <네잎 클로버>, 나운영의 <가려나>(김안서 시) 등이 모두 30년대에 나왔다. 해방 직전까지 주요 가곡작품들은 김동진의 <내마음>(김동명 시)과 <수선화>(김동명 시), 김세형의 <물기는 처녀>(모윤숙 시)와 <찢어진 피리>(이희승 시), 윤이상의 <편지>(김상옥 시), 조두남의 <접동새>(김소월 시), 김순남의 <상열>(오장환 시)·<탱자>(박노춘 시)·<철공소>(김복원 시) 등이 있다. 해방직전까지 가곡의 흐름은 홍난파·채동선·현제명·김동진·김성태·나운영 등처럼 서양식 기능화성적인 바탕에서 서정적 비감 경향과 안기영·김세형·이흥렬 처럼 민족적 선율로 창작한 작품과 함께 해방직전 현대기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김순남의 작품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흐름이 있었다.

(5) 민족음악의 전개

1930년대 이전의 항일노래가 단기적이고 분산적인 유격전에서 불리워졌다면, 1930년 이후부터는 한층 조직적으로 불리워졌다. 한중聯軍에 의한 항일가요로서 <중조민족단결항일가>와 <전투가>가 송화강 연안의 농촌과 광산에서 불리워졌다.⁵⁷⁾ 또 당시 조선혁명군 참모장이었던 김학규 작사·작곡한 <전우 추모가>가 불리워졌으며,⁵⁸⁾ 김학규의 부인이자 광복군 3지대 대원이었던 오광심이 1934년초 임시정부를 찾아가며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라는 <넘찾아 가는 길>도 함께 불리워졌다.⁵⁹⁾ 이 밖에도 1930년대부터 해방때까지 조선혁명군이나 조선의용군들에 의해 항일민족가요가 조직적으로 불리워졌다.⁶⁰⁾

57) 李敏 編·李勝權 譯, <항일투쟁 열화 속에 태어난 항일련군의 노래>(《東北抗日聯軍歌曲選》, 哈爾濱, 東方經濟文化中心, 1995), 7~20쪽.

58) 이중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일제강점기 겨레의 노래사》(혜안, 1998), 181~182쪽.

59) 이중연, 위의 책, 182~183쪽.

한편 국내에선 1938년 거문고 명인이자 동경제대 출신인 박석기와 명창 박동실이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초당에서 민족의 구국 영웅인 유관순·안중근·윤봉길·이준 등의 네 열사와 김유신·이순신 장군 등의 민족영웅들을 소재로 박동실제 열사가를 만들어 일제에 항거하는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 갔다.⁶¹⁾ 여기에서 임소향·김소희·한승호·박귀희·김동준·박후성·한애순·장월중선·김녹주·임춘앵 등 후에 한국판소리와 여성국극의 30여 명의 거목들이 당시 10~20대로 활동하여 오늘에 이른다.

일제강점하에서도 김세형의 <뱃노래>와 윤이상의 <편지>, 그리고 안기영의 조선가극 작품들은 기존의 가곡이나 가극과 달리 뜨거운 민족적 감정으로 창작하여 서양과 일본의 창작흐름을 민족음악으로 풀어가려 했다. 드디어, 해방직전인 1945년 8월 10일 작곡가 金順男은 ‘대중 속에 발을 힘차게 들여놓을 역사의 찰나’를 생각하며 민요풍의 <자유의 노래>를 지어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⁶²⁾

〈魯棟銀〉

3. 미 술

1) 전통 화단과 서양화의 이입

한국에 있어 서양 미술양식의 도입은 간접적인 건문과 서양인 화가들의 직접 내한 등의 단계를 거쳐 1910년대에 와서야 한국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60) 독립군가보존회, 《독립군가곡집—광복의 메아리》(독립군가보존회, 1982).

韓哲洙 編, 《獨立軍詩歌集 倍達의 脈搏》(사단법인 독립동지회, 독립군시가집편찬위원회, 1984).

진정혁 편, 《조선족 항일투쟁노래선집》(沈陷: 遼寧民族出版社, 1995).

이중연, 위의 책.

李敏 編·李勝權 譯, 앞의 책.

61) 노동은, <음악가들과 3·1절>(앞의 책, 2001), 332쪽.

62) 김순남, <나의 음악수업>(《예술평론》 3·4월 합병호, 예술평론사, 1948), 76~79쪽.

수학의 단계로 들어간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서양미술 수업은 1909년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高義東이 입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고회동이 남긴 자전적 기술에 의하면,¹⁾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로 있던 그는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술과 그림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은 전통회화를 수업하였으나 창조의 정신이 비어있는, 형식만의 전통회화에 환멸을 느끼고 다시 서양화를 선택했다고 한다. 고회동이 서양화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일찍이 궁정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교섭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서양문물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회동에 이어 동경에 유학한 사람들로 1911년 金觀鎬, 1912년 金瓚永, 1913년 羅蕙錫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 회화영역은 전문 화공들의 소속기관이자 書事 업무의 국가기관이었던 圖畫署가 폐지되자, 뜻 있는 서화가들이 후진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을 개설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1911년에 창설된 경성서화미술회는 書科와 畫科를 두고 각각 3년 연한의 수업과정을 설치하였다. 교강사진은 당대 일급의 서화가들인 安中植·趙錫晉·丁大有·金應元·姜璉熙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를 통해 배출된 신진 서화가들로는 李用雨·吳一英·金殷鎬·朴勝武·李象範·盧壽鉉·崔禹錫 등이다. 1910년대 이후 전통화단은 이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안중식·조석진으로 대표되었던 조선조 후기는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화미술회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서울과 지방에서 생겨났는데 1915년 金圭鎭에 의해 설립된 書畫研究會와 1919년에 출범한 고려화회가 대표적인 예다.

2) 서화협회와 조선미술전람회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고회동은 신진들을 위한 미술교육에 임하는 한편 근대적 성격의 화단의 형성에도 힘을 쏟았다. 안중식을 회장으로 고회동 자신은 총무로 창설된 서화협회는 우리 나라 최초의 미술단체이자

1) 고회동, 〈나의 화필 생활〉(《서울신문》, 1954년 3월 11일).

근대적 의미의 화단의 출현을 의미한다. “신구서화계의 발전, 동서미술의 연구, 향학후진의 교육 내지 公衆의 高趣雅想을 증장케 함을 목적”²⁾으로 내세운 서화협회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회호회, 전람회, 의촉 제작, 도서 발행, 강습소를 개설을 계획하였다. 전시·출판·교육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다. 시대적인 사명 의식하에 최초의 근대적 미술활동을 점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화협회의 본격적 활동은 협회가 창설되고 3년만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창설직후인 1919년 3·1운동의 발발과 회장 안중식의 서거, 20년에는 2대 회장인 조석진의 잇따른 죽음으로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21년이다. 서화협회전이 열리자 이에 자극 받은 조선총독부가 문화회유정책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1922년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미술전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서화협회전은 순수한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자 동인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조선미술전람회는 초대와 아울러 신인등용의 공모전으로서의 체제를 띠고 있었다. 대립된 양상을 보이던 두 전시는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화협회전의 위축과 조선미술전람회의 괄목할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성격과 회원전에 머물렀던 서화협회전에 비해 조선미술전람회는 한국인과 아울러 당시 한국에 체류했던 일본인 서화가들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규모와 활기가 있었다. 초기엔 총독부 주최의 전시라고 기피했던 한국인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신인등용문으로 인식되었다. 단순한 그룹전과 官展의 차이라고 하겠다.

조선미술전람회는 동양화부·서양화부·書部の 3부를 두고 초대형식과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다. 1932년에 가서 서부가 폐지되고 공예부가 신설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경부터는 새롭게 추천작가제가 도입되어 연속 4회 특선의 경우는 추천작가로서 초대되었다. 서부가 폐지된 것은 서예가 교양이지 예술형식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예술형식으로서 보다 살롱형식에 걸맞지 않다는 시대적 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2) 《서화협회보》(1921).

전통회화양식을 동양화로 공식 천명한 것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였다. 이전에도 동양화란 명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³⁾ 공식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동양화란 서양화에 대한 상대적인 명칭으로 서양화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서화란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1918년 최초의 미술단체 명칭이 서화협회인 것을 감안한다면 10년대엔 서화란 명칭이 보편화되었고 극히 일부에서 미술이니 동양화니 하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서화란 명칭은 서예와 회화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와 ‘화’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관념의 산물이다. 동양화란 명칭의 공식적인 사용은 대비적인 양식으로서 서양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서’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회화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화니 한국화니 조선화니 하는 주체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또 한편 동양화란 명칭은 전통적인 회화양식의 살롱예술로서의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대적 양식으로서의 자각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동양화의 소재나 방법이 전래의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현실추구의 리얼리즘에 경도되고 있음에서 변화의 내역을 읽을 수 있다. 리얼리즘으로의 경사는 주변의 산천을 모티브로한 寫景山水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비근한 일상에서 취재된 현실적 내용이 증가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리얼리즘에의 경도는 전반적인 시대적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일본화의 감각적인 현실인식의 방법에서도 많은 감화를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몽룡체와 도안풍의 채색기법은 가장 직접적인 일본화의 영향으로 해방 후 왜색의 탈피가 주요 논의로 떠올랐을 때도 주로 채색화의 기법적인 문제가 핵심이었다.

3) 서양화의 정착과 새로운 모색

주로 일본 동경에 유학한 서양화 지망생들은 당시 일본의 서양화, 즉 그들

3) 번영로, <동양화론>(《동아일보》, 1920년 7월 7일).

나름으로 해석된 서양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1920·30년대를 통해 일부 화가들이 서양에 유학했으나 국내에서의 이들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을 뿐이다. 당시 일본화단은 절충적 인상파를 아카데미즘으로 정착시켜 가던 무렵으로 한국의 서양화 지망생들이 접한 것도 이 같은 절충적 양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1920년대까지는 단순한 새로운 회화방법으로 서양화를 익히는 습작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개성적인 자기 세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같은 습작의 단계를 지난 30년대에 와서였다. 그런 과정에서도 김관호와 나혜석 등의 출현은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경미술학교 卒業展에 최우등을 차지한 김관호의 〈해질 녘〉은 같은 해 일본의 관전인 文展에서도 특선을 차지하고 천재적인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에 앞장 선 신여성의 대표격인 나혜석은 최초의 여류화가로서 많은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 초기에는 인상파풍을 답습하였으나 세계일주 이후는 야수 표현파풍의 경향을 섭렵했다.

서양화단은 습작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내면을 형성해 가는 활기를 보이고 있다. 개성적인 작품을 구사하는 미술가들의 등장과 조형 이념에 의한 결속체로서의 그룹의 출현이 1930년대로 진입하면서 왕성한 면모로 나타나고 있다. 金仁承·沈亨求 등 동경미술학교 출신들에 의한 아카데미즘이 조선미술전람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가하면 金鍾泰·金重鉉 등의 독학파에 의한 독창적인 화풍이 신선한 경향으로 각광을 받았다. 일본적인 감성에 의한 인상파를 탈피, 한국의 자연에 상응되는 본격적인 인상파를 주장하고 구가해 보였던 吳之湖·金周經 등의 존재도 1930년대 서양화단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인상파풍의 감각적인 기법에 도시적인 세련을 가미한 李仁星의 존재 역시 30년대 가장 뛰어난 작가로 기억된다.

1920년대와 30년대를 통해 해외에 유학한 서양화가로 대표적인 사람은 李鍾禹·任用璉·白南舜·鮮于膽·裴雲成으로 이 가운데서도 이중우는 프랑스 유학 중 본격적인 고전풍의 작품을 습득하여 절충적 인상파로 대변되는 당시 서양화단에 이채로운 존재로서 돋보였다. 대상을 해부학적으로 描破해 들이간 그의 고전적 화풍은 본격적인 서양화의 일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그룹의 출현은 이념의

결속체라는 그룹 본연의 속성을 떠나서도 미술가 사회라는 화단 형성을 더욱 구체화시켜 간 현상으로 주목된다. 1927년 金昌燮·安碩柱·金復鎭·林學善·申用雨·李承萬 등에 의한 蒼光會, 1928년 沈英燮·張錫豹·朴廣鎭 등의 綠鄕會, 1930년 具本雄·李馬銅·吉鎭燮·金應璫 등의 白蠻洋畵會, 1932년 재동경미술학우회인 白牛會, 1934년 李昞圭·구본웅·孔鎭衡·임용연·申鴻休·宋秉敦·黃述祚·이마동·張勃·金瑬俊·이종우 등의 牧日會 등이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에 걸쳐 등장한 그룹들이다.

이들 그룹들은 당시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한 미술의 제도적·권위적 추세에 반발, 보다 자유롭게 창작의 풍토를 진작시키자는 의욕을 지니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1930년대는 이념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새로운 기류가 활발히 만연되어 갔던 시대로 특징지어 진다. 이념적 결속으로서의 그룹의 연이은 출현과 새로운 경향의 모색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충적 인상파풍에서 벗어나 후기인상파에서 비롯되는 개성적·주관적 미술사조가 30년대 후반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해 주고 있다.

후기인상파에 이어지는 야수파·표현파·미래파·구성과·추상파·초현실주의 등 이른바 신감각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경향은 주로 일본에 체류하거나 유학중이었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추구되었다. 서울화단에선 아직도 이 같은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기엔 문화적 풍토가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부터 왕성하게 존재되는 아방가르드운동은 그 무대가 일본의 동경화단이었다. 당시 일본의 진위적 단체로는 二科會·獨立展·新制作派·自由展·美術文化展 등으로 이들 재야전에 참여했던 한국인으로는 구본웅·길진섭·文學洙·金煥基·李仲燮·劉永國·李揆祥·宋惠秀·李快大·金宗燦·崔載德·金晚炯·金夏建 등이었다.

새로운 감각의 추구하고 더불어 1930년대는 향토색에 대한 관심과 천착이 활발했다. 주로 풍속적인 단면을 소재화한 작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곁들여 우리의 고유한 미의식에 대한 미학적 조명이 활발히 전개되어지고 있다. 향토색에 대한 관심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보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깔면서도 우리 고유한 미의식에 대한 자각 현상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일본인의 이국 취미에 결부된 감상적·퇴조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

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30년대는 민족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대로 향토적 소재에의 천착도 이 같은 시대적 추세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의 일본인 심사원들이 그들과 다른 이국적 소재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려는 태세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낙향회가 주장했던 초록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건강한 자주의식이 있는 반면, 이국 취미에 결탁된 알팍한 감상주의도 배재할 수 없다.

우리 미에 대한 연구는 먼저 일본인 민속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에 이어 高裕燮·金瑑俊·尹喜淳 등에 의해 우리 미의 성격규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순후한 아름다움, 무기교의 기교 등 우리 미의 특징이 이들에 의해 규명되었다. 고유한 미의식에 대한 자각현상은 피폐해져 가는 한국인의 정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4) 근대적 성격의 조각

회화에 있어선 전통적인 양식과 외래적인 양식이 공존하는 반면, 조각에 있어선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 전통적 회화양식을 동양화로, 서양에서 이입된 양식을 서양화 내지 양화로 부르는 현상은 비단 회화에 국한되지 않고 衣食住의 樣式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컨대, 재래의 건축양식을 한옥이라고 부르는 반면, 서양식 건축양식을 양옥으로 부르고, 전통적 음식을 한식이라고 부르는 반면 서양식 음식을 양식으로, 전통적 의상을 한복으로 부르는 반면 서양식 의상을 양복 내지 양장이라고 부르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에서는 이 같은 상대적 명칭이 있지 않다. 요인은 서구에서 이입된 서양식 조각에 대한 전통적 양식의 조각이 없었다 점이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뛰어난 전통을 이어온 조각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정책적인 불교탄압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조각 예술을 꽃피웠던 불교문화가 쇠퇴하면서 조각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조각 예술이 영락해간 요인은 회화가 순수한 감상의 품목인데 반해 조각은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불상은 예배의 대상이지 감상의 품목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

국의 근대 조각은 서구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으로 서구식 조소의 방법을 수학한 사람은 1919년 동경미술학교 조소과에 입학한 金復鎭이었다. 고희동이 서양화를 수학하기 위해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뒤의 일이었다. 비교적 서양화의 지망생이 급증하는 반면 조각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극히 한정된 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조각 예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수요의 문제에 기인된 것 같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조각부가 따로 설정되지 못하고 서양화부 아니면 공예부에 속했던 요인도 수적인 열세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고희동에 의해 많은 서양화 지망생들이 배출된 것과 같이 조각 역시 김복진에 의해 많은 문하생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동경에 유학했고 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해방전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가들은 梁熙文·張基男·安奎應·文錫五·林淳茂·洪淳慶·李炳三·金斗一·李國銓·曹奎奉·金景承·尹承旭·尹孝重 등이다.

조각의 방법은刻을 위주로 하는 목조·석조와, 떠내는 방식의 塑造로 석고·브론즈를 들 수 있다. 당시 동경미술학교에선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목각조각을 내세우는 한편 서구식 방법으로 소조를 내세웠다. 한국의 조각 지망생들의 대부분은 서양의 방법에 경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조각작품의 내용은 소조에 의한 두상 정도가 대부분으로 아직도 습작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복진을 비롯한 윤효중·윤승옥·김경승·이국전 등의 전신상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국면에 이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전시체제하에서의 미술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술계는 전반적인 위축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일제의 광분하는 침략정책은 모든 문화·예술활동을 전시체제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 경부터 활기있게 등장하던 전위적 미술 활동은 퇴폐적이고 불건강한 것으로 낙

인찍혀 그 활동이 제어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조형 활동에 시국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강요당하였다. 1942년엔 후방에서 싸운다는 의미의 銃後美術展・決戰美術展 등이 열리어 조형 활동 자체가 일제의 전쟁 완수를 위한 방편으로 전략되어 갔다. 전위운동에 참여하였던 일부 미술가들은 잠정적으로 활동의 휴먼기에 들어갔으며 적지 않은 미술가들이 일제의 報國체제에 강요된 작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1940년에서 45년까지의 미술활동이 빈약한 것은 바로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吳光洙〉

4. 체육 · 무용

1) 일제하 근대체육의 성장과 시련

(1) 일제의 식민지 체육정책과 민족체육의 대응

일제하 식민지 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선민족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족의식을 봉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구한말 체육교육을 통해 건전한 신체보다는 국권회복의 기초로서 무력을 양성하려던 조선민족의 체육 목표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일제는 우선 조선민족의 전통적 체육을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명분하에 규제 내지 탄압하고, 구한말 이래 개최해 온 연합운동회를 철저히 금지하여 민족의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체육정책을 펴나갔다. 이와 함께 서구의 근대식 체조를 도입하는 한편, 일본 유희의 보급을 통해 조선 체육의 자주성을 가능한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가. 교육을 통한 식민체육정책

구한말 학교교육을 통해 보급되던 근대체육의 싹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제도의 확립과정 속에서 통제됨으로써 점차 침체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910

년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일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교육체제의 확립을 통해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신민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과 같은 해 10월 20일에 총독부령을 제정하여 식민지 교육정책의 골격을 마련하였다.¹⁾ 그 핵심적 내용은 대학교육이 빠진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년 또는 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으로 모든 학교를 거의 3년~4년의 단기교육 연한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보통학교에서는 지방사정에 의해 체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관·공립학교 생도의 신체검사규정에 여학생에게 체조를 적용치 않는다고 발표하였다.²⁾ 이러한 교육정책은 식민지 민중의 우민화를 기도하는 동시에 봉건적 교육관을 그대로 드러낸 전근대성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학교체육의 내용은 체조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남자보통고등학교에 기계체조 과목이 정식으로 채택되고,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체조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나며, 종래까지 체육을 통해 “身體의 強健과 協同을 崇尚한다”는 목적에서 일제의 무단통치에 순응하는 “節制를 美徳으로 함”이라는 목적으로 바뀐 것이었다.

1914년 6월에는 체조를 포함한 교수요목을 반포하였는데, 이 조치는 식민지하에 학교체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학교체육은 종래의 체육과는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체조교육의 내용이 遊戲・兵式體操・보통체조에서 체조・교련・유희로 구분되었다.³⁾ 이때 병식체조가 교련으로 독립되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일제의 군국주의적 체육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지닌 것이었다. 둘째, 한말 운동회에서 행하던 전통적 유희와 함께 근대적 스포츠가 행해지는가 하면, 桃太郎・渦卷・池鯉・大和男子 등의

1) 나현성, 《한국체육사》(교학연구사, 1983 개정판), 139~149쪽.

2) 《官報》, 1911년 10월 20일, 號外.

3) 체조의 내용은 교육체제마다 달랐다. 우선 보통학교에서의 체조는 유희와 보통체조로 구분되며, 교수시간의 일부 혹은 시간외에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희는 집밖에서 행하는 유희를 하되, 수영・스케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의 체조는 보통체조와 기계체조를 부과하였다. 다만 고등보통학교의 1년제의 사범과에서는 유희와 보통체조를 부과하여 보통학교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체조는 보통학교와 같이 유희와 보통체조를 부과하였다(나현성, 앞의 책, 141~149쪽).

일본의 유희가 도입되었다. 셋째, 체조과 교수시간 외에 체육운동이 권장되었다. 넷째,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발달에 맞게 지도하고 교실의 청결과 통풍, 그리고 채광을 완전케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체육이 모든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체조 교수요목의 반포는 당시 각 학교의 체조교육이 제각기 다른 것을 통일한다는 취지를 띠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체조교육이 종래 병식체조 · 보통체조에서 瑞典體操로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 근대체육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학교체육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목적인 황민화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한말 병식체조를 통하여 국권회복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방향과는 달리, 근대적 체육이라는 미명하에 서전체조를 비롯한 구미 제국의 새로운 유희를 도입하여 병식체조를 탈피함으로써 식민지 체육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학교체육에서 자주성을 박탈한 것은 체조교육 내용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학교체육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체조교육에 대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1915년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보통교육 ·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을 제한하였다. 총독부는 우선적으로 체육교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통해 구한말의 민족주의적 학교체육을 담당했던 구한국군 출신의 체조교원을 제거하는 대신, 일본군인으로 충당하였다. 이제 학교에서의 체조교육은 황국신민으로서 곧 일본제국을 수호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서도 일관되어 나타났다. <사립학교규칙> 제10조 2항에는 교원자격 규정을 두어 일본어에 통달하고 일정한 학력을 가져야 하는 등 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 체육정책은 한편으로는 학교체육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회와 같은 민족경기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도 펼쳐지고 있었다. 한말부터 계속되어 온 운동회는 병탄 이후에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⁴⁾ 그럼에도 각처에서 학교 내지 지역을 연고로 한

4) 《大韓每日申報》, 융희 3년(1909) 12월 30일.

연합운동회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1912년 5월 10일 경성부내 8개 사립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끝으로 연합운동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 경신·배재·보성·오성·중앙·청년회관·휘문의숙 등이 연합한 춘계대운동회는朴泳孝·閔丙奭·李容植·尹應榮·尹致昊 등의 기부금으로 이루어 졌다. 그런데 경기운영 미숙으로 1등기가 잘못 수여된 것에 반발하여 난투극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제는 교육적인 폐단을 이유로 들어서 동년 5월 31일 내무장관이 학제 716호로 이후 연합운동회를 중지하도록 강제하였다.⁵⁾ 이후 연합운동회는 폐지되는 대신에 개별 학교 단위의 운동회만이 열려, 사회체육적인 성격을 띤 운동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다.

결국 1910년대 학교체육의 재편과 체조교원의 자격 제한, 그리고 연합운동회의 폐지 등은 일제가 교육을 통한 식민지 체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구한말에 활발히 전개되던 민족체육을 압살하면서 장차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체육적 기반 확보라는 정치적 기도가 깔린 것이었다. 특히 조선의 자립적인 근대화의 싹을 잘라버리고 민족주의 체육운동을 진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 학교체육정책의 골격은 이처럼 무단통치기에 성립되었던 것이다.⁶⁾

나. 경기를 통한 식민체육정책

우리 나라에 근대 스포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개항 이후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였다. 주로 학교체육을 통해 소개된 근대 스포츠 가운데 가장 빨리 도입된 것은 체조·육상 등이었다. 체조는 1895년 4월 1일 <한성사범학교 설치령>에 체조교과가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육상은 1896년 5월 2일 영어학교 교사인 허치슨(Hutchison)의 지도하에 화류회에서 소개되었다. 또한 검도는 같은 해 경무청에서 검도를 경찰교습 과목으로 채택한 것으로 비롯하였다. 전통적으로 행해진 운동이었지만, 1898년 5월에는 무관학교 학생들에게 휴가시 수영연습을 하게 하는가

5) 朝鮮教育研究會 編, 《朝鮮教育法規》(京城, 1917), 818쪽.

6) 西尾達雄,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いて學校體育政策に關する研究》(日本 奈良女大 박사학위논문, 2001).

하면, 1899년 4월 30일에는 학부 주최 관립·사립학교 운동회에서 씨름을 경기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1890년경에는 선교사에 의해 테니스가 보급되었다. 당시 양반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한탄했다는 일화는 근대적 운동경기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1900년대에 들어와 근대식 운동경기의 보급은 더욱 확대되었다. 1904년 9월 24일에는 陸軍研成學校에서 사격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였고, 1905년에는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Gillet)가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지도하였으며, 같은 해 외국어학교의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축구가 소개되었다.⁷⁾ 이듬해인 1906년에는 육군 참위 權元植과 일본인 요시카와(吉川)가 훈련원에서 자전거 경기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일본인 우치다(内田良平)에 의해 유도가 전래되었다. 1907년에는 농구가 질레트에 의해 보급되었다. 1908년에는 일본인이 대동강에서 빙상운동을 개최하였고, 탁지부 관리들의 운동회때 정구 경기종목을 채택하였다. 또한 1909년에는 전통스포츠로서 근위기병대 군사들이 훈련원에서 기병경마회를 거행하였고, 李相弼이 射弓會를 발족하였다.

이상의 구한말 체육은 대부분 학교체육과 운동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육상 경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근대적 경기가 소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다만, 이들 근대적 운동경기는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았고, 황성기독교청년회 및 서울 소재의 몇몇 학교에서 행해지는 데 불과하였다. 거기에다가 식민지 이후 학교체육에서 유희가 강조되고 일인들이 한국에 대거 이주하여 운동경기를 보급시키는 과정을 통해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었다.

1910년대에 활발히 개최된 경기는 야구·자전거·정구·빙상 등이었다. 첫째 야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한말 질레트에 의해 서울소재 학교를 통해 보급되어 발전되다가, 1915년 조선공론사 주최로 조선 최초의 야구경기가 열렸다.⁸⁾ 이처럼 1910년대는 야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으나,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주도권은 일인에 의해 장악되었다.

7) 김형희, <한말 대한체육구락부의 창립과 활동> (韓國體大 석사학위논문, 2000).

8) 大島勝次郎, 《朝鮮野球史》(京城, 1932), 1~5쪽.

둘째, 자전거는 이 시기에 크게 유행하던 스포츠의 하나였다. 1913년 처음으로 열린 자전거경주대회는 인천·서울·부산·평양 등 4곳에서 당시 일본 선수와 함께 100여 명이 출전하였는데, 당시 嚴福童이 우승함으로써 ‘자전거 대왕’으로 떠받들어질 정도였다. 1915년에는 최초의 전선자전거경주대회가 열렸으며, 1917년에는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의 공동주최에 의해 전선자전거대회가 개최되어 사회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⁹⁾

셋째, 1910년대에 야구와 함께 크게 보급된 경기가 정구였다. “정구는 가장 일찍 수입되어 청년층의 경기로서 가장 널리 보급된 운동경기였다”고 하듯이, 당시 정구는 크게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여성의 운동경기로서 환영받고 있었다. 실제 당시 정구는 서울·인천을 막론하고 모든 지방에서 활발히 행해졌다. 그리하여 당시 “정구와 야구 이외 기타의 운동경기는 볼만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서, 정구는 근대 운동경기 중에 가장 일찍 보급된 경기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다만 정구 역시 대부분 일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가 주도권을 장악한 채 이루어졌다.

넷째, 이 시기에 빙상경기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 빙상경기의 열기는 1912년 2월 4일 용산 스케이트장이 개설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 경기도 역시 일인에 의해 주도된 경기로서, 실제 스케이트장의 개설은 일본인의 연습을 위한 목적이 컸다. 어쨌든 당시 빙상은 근대적인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주로 유흥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성고등보통학교는 조선 최초의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한 학교였다. 한국인들에 의해 빙상이 보급된 것은 1920년대를 지나야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경기 이외에도 축구·승마·유도·검도 등이 1910년대 행해진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운동경기는 대부분 일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당시 조선인들에게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당시 근대적인 스포츠가 크게 보급되지 못한 까닭은 아무래도 이를 수용할 만한 사회계층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대적 스

9)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지식산업사, 1990), 104쪽.

10) 大島勝次郎, 앞의 책, 6~9쪽.

포츠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¹⁾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점차 조선에 근대스포츠가 보급되고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자 일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인 중심의 체육단체 결성을 통해 본격적인 스포츠 권장책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1919년 2월 18일에 창립된 ‘조선체육협회’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체육협회는 원래 조선에 있는 15개 정구단이 모여 1918년 가을에 결성한 경성정구회와 1919년 1월에 결성된 경성야구협회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단체였다.¹²⁾ 따라서 조선체육협회는 정구부와 야구부를 두었으며, 매월 1회의 기관지 《朝鮮體育界》를 발행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운동부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체는 조선에 설치된 최초의 민간체육단체로서,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었다. 특히 보통회원 보다는 철저한 회장중심의 조직으로서 운영되었다.

조선체육협회는 조선신문사의 후원하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성일보사를 자극하여 양 신문사가 야구대회·정구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결국 양 신문사의 대립은 조선체육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후원으로 서로 타협되었으며, 그 후 조선체육협회는 명실상부하게 운동경기계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1910년대 일인에 의해 주도된 스포츠계의 총본산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음과 이후 일제 식민지하에서 사회체육을 주도해 나가는 체육단체로 성장하였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 이후 1910년까지 근대식 운동경기가 들어오는 계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를 통해 근대적 운동경기가 소개되었다. 둘째, 서양의 선교사 및 기독교 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한국 근대스포츠의 대부분은 이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일본인의 이주에 의한 운동경기가 보급되었다. 근대 운동경기의 도입이 구한말에 주로 선교사를 통해 학교체육이나 체육단체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급되었다면, 1910년 이후에는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인에 의한 운동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특색을 보였다.

11) 이학래, 앞의 책, 108~109쪽.

12) 大島勝次郎, 앞의 책, 126~128쪽.

13) 이학래, 앞의 책, 110쪽.

다. 민족체육의 성장과 대응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에 따라 이 시기의 조선 체육계는 한말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체육활동은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고, 조선인의 체육활동은 그 규모나 참여인원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조선 체육계는 일제통치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조선인이 중심이 된 근대 스포츠의 보급이 활성화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종로 기독교청년회, 즉 YMCA의 체육활동이다. 사실 YMCA는 1910년 일제의 무단통치기하에서 체육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던 거의 유일한 단체였다. 당시 일인에 의해 모든 체육이 장악되고 있을 때, YMCA의 조선인들은 이 곳을 통한 체육의 보급과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나갔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탓에 YMCA는 꾸준히 체육을 발전시켜 갈 수 있었던 것이다.¹⁴⁾ 특히 이곳에서는 축구·야구·농구·배구·체조·유술 등의 종목을 보급하고 경기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종목을 위한 지도자 훈련도 겸하고 있었다. 당시 모든 경기의 총집회수가 502회, 연 참가인원이 총 1만 2,000여 명에 이르렀고, 운동경기시합도 1년간 총 32회가 열려 평균 10일에 한번씩 열렸음을 알 수 있다.

YMCA의 체육활동은 1916년 5월 6일 실내체육관 준공을 계기로 보다 본격화된다. 실내체육관은 3층 벽돌건물로서 미국 YMCA 회원들과 청소년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는데 클럽실·체육실·탈의실·샤워실 등을 갖춘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실내체육관이었다. 이를 계기로 큰 인기를 얻어 당시 성인부에 연 1만 7,768명, 소년부에 연 2만 4,756명이나 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YMCA의 체육활동 결과, 일반인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몇 해 전만 해도 신사들과 그 자제들은 운동경기를 천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일변하여 모든 신사들이 운동을 즐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YMCA의 공헌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연중무휴로 운동할 수 있

14)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정음사, 1978), 190쪽.

는 곳은 YMCA 밖에 없었다.¹⁵⁾

이와 같은 YMCA의 활동은 일본인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조선에서 근대적 운동경기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일인들이 주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체육을 장려한 반면, YMCA는 순수한 체육을 장려·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에서 근대적 스포츠 경기가 크게 확산되는 배경은 바로 YMCA의 순수한 체육활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바로 이점이 1910년대 YMCA의 체육활동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인 것이다.¹⁶⁾

둘째로 민족 고유의 경기인 궁술·鞆鞭·씨름 등의 부활 등을 통해 근대 스포츠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 운동경기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구한말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지만, 1910년대에 매우 크게 일어났다. 그 가운데 활쏘기는 1916년 4월 30일에 朝鮮弓術聯合大會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궁술은 조선 고유의 상무정신을 진작시키고 문무를 겸비한 국민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되는 면이 있었다.¹⁷⁾ 또한 심신수련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오락으로도 적합한 운동이었던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궁술 대회는 단지 전통적인 무예의 부활이 아니라 근대적 체육정신이 바탕이 되어 새롭게 부활된 것이었다.

당시 조선궁술연합대회는 3·1운동 당시 천도교 대표로 33인중의 한 사람이었던 權東鎭을 비롯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조선궁술연합대회는 일제와의 타협에 의해 개최되는 개량적인 성격을 띤 대회였다. 반면에 씨름은 일제와의 타협없이 순수한 욕구에 의해 개최되었다.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던 씨름대회는 1916년 독섬에서 열렸는데,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었다.¹⁸⁾ 이처럼 시골 장터나 강변 모래판에서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행해진 이 씨름경기는 일제하에서 가장 민중적인 운동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층에 의해 향유되던 궁술과 달리, 씨름은 주로

15) 전택부, 위의 책, 221쪽.

16) 이학래, 앞의 책, 113쪽.

17) 《매일신보》, 1916년 4월 29일.

18) 《매일신보》, 1916년 6월 21일.

평민들에 의해 행해지던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셋째, 운동경기를 통해서 일본 선수들을 제압함으로써 민족적 우월감과 울분을 달래는 흐름이었다.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항경기가 훨씬 더 관심이 집중되고, 조선인에 대한 응원이 열렬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1914년 10월 10일 훈련원에서 오성학교팀과 일본 철도구락부와의 접전 끝에 14대 13으로 승리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패배를 설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인이 패배하자 조선인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¹⁹⁾

이처럼 운동경기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운동경기를 통해 민족감정을 발산시켜 버림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경기를 통해서만 민족적 울분을 달래는 데 그침으로써 식민지 체제를 극복하려는 독립의지를 흐리거나 마비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1910년대의 체육이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하에서, 특히 민족운동이 비밀결사의 형태로 잠복한 시기에, 경기를 통해서나마 일인들을 제압하고 조선인의 기상을 드높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개량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 이 시기의 체육이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와 민족체육의 성장

가. 3·1운동과 민족체육의 재인식

일제의 무단적이고 침탈적인 식민정책에 대해 조선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거국적이고도 민족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였고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3면 1교를 목표삼아 보통학교의 증설이 꾀해졌고,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직에 조선인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의 문화통치라는 지배정책의 변화에 따라 1920년대에는 특히 문화활동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속에서 체육도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19) 《매일신보》, 1914년 10월 13일.

크게 발전하였다.

그 발전의 양상은 학교체육에 머물던 각종 체육활동이 각종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체육을 지향하는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구한말 이래 학교체육을 통하여 각종 운동경기와 체육활동을 접하였던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지도층으로 성장하면서 체육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신문화에 대한 자각과 민족의식을 지닌 지식인층이었다. 특히 3·1운동의 민족적 합성을 목도했던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힘이 바로 체육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였다.

1920년 이후 체육에 대한 중요성은 한말의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강조되었던 것 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었다. 1925년 9월 26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민족의 성쇠는 정치나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으로는 체육에 있다고 할지니 민족의 건전한 의기가 왕성한 체육에서 비로소 기대할 수 있을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정치와 경제는 간접으로 재료를 공급함에 불과하니 직접으로 원기의 주체는 체육에 있는 고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원기의 성쇠는 체육의 발달 여하에 정비례할 것이다. …체육을 장려함은 운동선수를 위하여 조흔 일일 뿐 아니라 민족적 元氣와 사회적 風紀를 위하여 有意한 일이라고 믿는다(《동아일보》, 1925년 9월 26일).

위의 내용에 의하면, 체육의 발달 여하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인식하에 전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체육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의 후진성과 열등성을 통해 민족의 개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였다.²⁰⁾ 이는 위생과 체력, 더 나아가 근대적 운동경기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이 후진적이고 열등하다고 선전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당시 언론에서는 조선인의 체육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한

20) 이광수가 이 당시 ‘민족개조론’이라는 논지를 통해 민족적 반성을 촉구한 배경에는 바로 일제의 기만적 식민정책이 깔린 것이었다(김용달,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연구〉, 《택와 허선도선생정년기념논총》, 일조각, 1992).

편,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왜곡 날조된 악의적인 선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즉 《동아일보》는 일제가 자신들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조선의 실정과 전혀 다른 사실을 내외에 선전하여 불쾌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한편, 조선인의 위생사상이 유치하고 불결한 것으로 치부한 것을 고발하였다. 또한 조선인의 위생상태가 일본인에 비해 못한 것이 민족성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²¹⁾

위생은 사실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의 기초인 만큼, 이미 구한말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교육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그 개선의 효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일제가 악의적으로 선전하자, 조선의 지식인층은 위생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체육을 아무리 장려해도 위생에 주의하지 않으면 체력증강은 실패한다는 것이었다.²²⁾

체육은 본래 건강한 신체를 통해 건강한 정신을 기른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체육이 본래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그런데 1920년대 각종 운동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과열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체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본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실제로 1924년 자전거대회 이후 발생한 불상사는 선수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²³⁾ 그러자 당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운동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건전한 체육정신의 함양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었다.

원래 體育의 목적이 교육상 중요한 科目이 됨이 多言을 不要할 것이라. …만일 體育를 들어서 단순히 身體의 鍛鍊으로만 觀察하고 技術의 勝負로서만 思考하면 이는 體育이 아니라 體爭이며 眞勇이 아니라 蠻勇이니 이러한 의미의 체육장려는 吾人이 聲援치 아니하고 首肯치 아니하는 바다. 如何히 拔山의 力이 有하고 萬夫의 勇이 有하다 할지라도 謙讓의 德이 無하며 廉恥의 心이 無하면 이는 蠢動하는 物體라 所用이 何處이뇨 체육경기의 法이 그 엇지 容易하리오 (《동아일보》, 1922년 5월 21일, 〈全朝鮮庭球大會開催에 대하여〉).

21) 《동아일보》, 1927년 2월 1일.

22) 이용설, 〈보건운동의 필요〉(《동광》 27, 1931년 11월).

23) 《동아일보》, 1924년 6월 14일, 〈운동계에 대한 우려〉.

위의 내용처럼 각종 운동경기에서 운동선수 사이의 불화나 응원단간의 충돌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체의 단련과 기술의 승부만을 평가하는 체육이 아니고 體爭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위한 용기는 진실된 용기가 아닌 만용이라고 못박았다. 이어서 산을 뽐을 만한 힘과 만 명의 용기를 가졌다할 지라도 謙讓의 德과 廉恥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체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당시 체육활동의 활성화는 경기의 과열로 인한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체육의 본질 내지 정신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당시 여론이 ‘체육의 본정신’이라는 제목하에, “당당한 경쟁, 호조적 정신, 비루하지 않은 정신” 등을 강조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⁴⁾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運動道’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운동의 역사적 발달을 대략 진술하고 運動道라는 신용어를 정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고 검해야 운동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말하랴 한다. …심신상관의 이론을 근거삼아 체육학이 실제 발달함으로부터 운동의 필요가 세인에게 두루 알게 되었스니 운동은 신체를 강건코 기민케 할 뿐 아니라 정신을 수련함에 막대한 공효가 잇슴으로 운동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운동도는 엇더한 것인가 상세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 이번은 대강령만 들어 말하랴 한다. 운동도는 광명하다. 그럼으로 운동가는 비열한 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 도는 유쾌하니 이기면 물론 기쁘고 저도 혼연한 것이요, 그 도는 강의하니 강한 것을 겁내지 안코 약한 것을 업시여기지 아니 할 것이며, 운동가가 협동함을 숭상하고 규율직함을 귀히 여기고 쾌활하고 기민하고 인내심을 발휘함은 모다 이 도를 체현함이나 진정한 운동가가 되라함에 이 도를 살필 수 잇스며 그 다툼이 군자라 함에 이 도를 엇볼 수 잇을 것이다(《동아일보》, 1924년 9월 26일, 社說〈運動道〉).

운동도란 신체의 단련 뿐 아니라 정신수련의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光明 · 正大 · 愉快 · 剛毅 · 協同 · 規律 · 機敏 · 忍耐 등을 발휘하는 정신 등을 들고 있다. 운동도는 조선인의 체육정신을 말하는 것이며, 곧 서양의 스포츠 맨쉽과 연결된다. 이후 운동도로 대표되는 체육정신으로는 실력 · 자신 · 용

24)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독자투고 〈체육의 본정신〉.

감·정직 등이 강조되는가 하면, 스포츠맨 정신과 인격함양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²⁵⁾ 이처럼 192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체육의 본질 내지 체육의 정신에 대한 열기는 근대적인 체육문화를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민족개론을 염두한 황국신문화에 기우는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1920년대 조선 체육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성들의 체육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체육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여성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점과 여성의 체력이 조선 모성의 체력으로서 중시된 데 있었다.

우선 신조선의 건설에 필요한 여성의 건강과 체력문제가 고조되었다.²⁶⁾ 당시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부터 신문화 도입 이후 여성을 사회적으로 해방시키는 데 여성체육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또한 당시 여성운동선수는 조선민족 건강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모성체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주최의 전조선여자정구대회는 여성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까닭은 정구가 여성의 체육활동으로 크게 인정받아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회에 발전에 따라 여성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게 되었다.

나. 각종 경기단체의 창설과 운동경기의 활성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정치로 변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각종 체육단체가 결성되었다. 사실 조선민족의 체육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5) 최능진, 〈스포츠맨십 운동정신 급 도덕〉(《동광》 22, 1931년 6월).

———, 〈정직-운동정신의 요체〉(《동광》 23, 1931년 7월).

현정주, 〈인격적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동광》 39, 1932년 11월).

주요한, 〈스포츠맨 스피릿함양을 주로 노력하라〉(《조선체육계》 창간호, 1933년 7월).

정상윤, 〈운동선수과 운동정신〉(《조광》, 1938년 4월).

26) 《동아일보》, 1925년 6월 6일, 사설 〈여자와 체육-제3회전조선여자정구대회에 대하여〉.

27) 《동아일보》, 1926년 10월 1일, 평론 〈녀자 정구선수에게 두가지 희망〉.

이끌어갈 수 있는 체육단체가 부재했으므로 단체의 결성은 조선의 체육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그러한 시대적 욕구는 19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사설에서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으로 분출되었다.

과거에 우리가 비록 운동에 대하여 냉정하였슬지나 또 아모 관념을 두지 아니슬지나 신시대의 신세계의 급일에 至하여서는 운동에 대하여 크게 열렬하여지고 만히 연구도 하며 노력도 하며 장려도 하여 품 조선에 운동열을 크게 니리키라. …吾人은 이에 장래의 운동계를 위하여 기관을 설립함이 自今의 急務요 要務니 이론보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겠다. 최근 경성에는 한 체육의 기관이 니러나려고 煩悶苦痛한다. 此機에 際하여 품 조선운동계를 개탄하는 유지청년은 總히 共鳴하여 誠力を 내며 誠力を 協하여 구체적으로 기관의 설립을 期成하여 운동가를 양성하며 운동을 장려하여 萎靡不振한 현상을 쇠신하여 조선운동계의 신기원을 건할지니…(《동아일보》, 1920년 4월 10·12·13일, 사설 〈平波,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 1·2·3〉).

위와 같이 체육기관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1920년 7월 13일에는 오늘날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체육회는 서울에 그 본부를 두고 각도에 14개 지부를 설치하여 조선 체육의 통일적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더구나 산하단체는 아니었지만, 조선야구심판협회·조선정구협회·조선씨름협회·조선축구심판협회·조선농구협회·조선농구심판협회·고려육상경기회·조선수상경기회·조선축구협회·조선아마투어권투연맹·경성육상경기연맹 등과 협조 조직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체육회는 일본인의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조선체육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부상하였고, 1925년 2월 27일에 창립된 관서체육회와 조선체육계의 쌍벽을 이루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²⁸⁾

조선체육회는 1920년 11월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창설하였는데, 이 대회는 제1회 전국체전에 해당하는 경기대회였다. 이후 조선체육회는 전조선축구대회는 물론이고 정구·육상·빙상·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1929년에는 ‘전조선경기대회’를 열어 국내 최초의 종합경기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8) 김미숙, 〈관서체육회의 활동이 근대체육발달에 미친 영향〉(한국체대 석사학위논문, 1999).

특히 자전거경기의 제1인자인 엄복동은 늘상 일본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독차지하였는데, “쳐다보니 安昌男, 굽어보니 嚴福童이라”라는 유행가사가 불려질 정도로 그 인기가 절정이었다.²⁹⁾ 또한 평양에 설립된 관서체육회는 축구·정구·배구·농구·빙상·수영·탁구·육상 등의 근대스포츠와 민속경기인 씨름대회는 물론 조기운동회와 동맹체조단 결성, 일광욕 보급운동과 수영강습회를 통해 민족체육과 위생보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다.

위의 두 단체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는 90여 개의 지방체육단체가 결성되어 조선체육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각지의 체육단체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3·1운동 이후 1934년까지 결성된 체육단체 현황

서울 1개	충청 7개	전라 9개	강원 9개	함경 9개
경기 6개	경상 16개	평안 23개	황해 10개	計 90개

* 이하래, <1920년대 이후 각 지방 체육단체 결성현황>(《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1990), 276~291쪽.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체육단체는 전국에 걸쳐 골고루 결성되었다. 이점에서 1920년대는 조선체육계가 근대체육을 보급하고 성장하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평안도가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이 지역이 근대체육의 도입 열기가 타 지역보다 고조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평안도가 일찍부터 무예를 숭상하던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다가 조선후기 이래 상공업을 기초한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근대적인 교육은 물론 체육문화를 앞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각종 체육단체는 각기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축구·농구·배구·야구·정구·육상·빙상·수영·탁구·복싱·유도·검도·자전거 등의 각종 근대 스포츠대회를 활발하게 주도해 나갔다. 또한 씨름·그네 등 민족적인 전통체육활동을 권장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각종 시민운동회의 개최와 보건운동과 같은 지역민의 체력과 건강을 위한 활동도 지속하였다. 무

29) 심승구, <한국 스포츠 100년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교지》17, 한국체대, 2000).

엇보다 전국 각처에서 단체의 결성과 함께 추진된 각종 스포츠대회의 개최는 한국의 근대스포츠가 전국에 걸쳐 보급되고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시에 전국에 걸친 경기대회는 식민지 조선민중의 최우선 과제인 독립의지를 마비·약화시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민족체력의 향상을 통한 민족단결과 독립의지를 고양시키는 또 하나의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외동포·유학생의 모국방문경기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09년 동경유학생야구단의 모국방문을 시작으로 1920년대에 들어와 해외유학생의 방문경기가 크게 늘어났다.³⁰⁾ 주로 동경·상해·하와이 유학생이 주축이 되어 야구·축구·정구·럭비·육상·권투·농구·레슬링·빙상·자전거·무도단 등이 적게는 한차례로부터 많게는 12차례까지 방문하여 한국의 근대체육 발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모국방문 경기를 통하여 최초로 유니폼을 소개하였으며, 운동규칙과 운동용구, 그리고 운동기술과 경기 도입에 공적을 남겼다.³¹⁾ 무엇보다도 이들은 외국에서 습득한 과학적인 경기방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각종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전시파쇼체제와 민족체육의 저항

가. 전시체제의 가동과 민족체육의 저항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는 ‘문화정치’적인 기만정책이 끝나고 파시즘체제가 강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1920년대 말 세계공황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일본 자본주의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륙침략을 본격화해 갔다. 1931년 만주침공을 계기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마침내는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철저한 군국주의 파쇼체제로 바꾸어 갔다. 식민지 파쇼체제의 강화는 군

30) 1909년 동경유학생야구단을 시작으로 1910년대 4차례, 1920년대 19차례, 1930년대 16차례, 1940년대 11차례 등으로 1920년대가 해외동포유학생의 모국방문경기가 가장 많았다(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 1965, 221~230쪽).

31) 이학래, 앞의 책, 168~171쪽.

사력과 경찰력의 증가, 철저한 사상통제와 전향 강요, 전시체제하의 국민생활 통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더구나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조선민족에 대한 황국신민화정책은 조선 민족성의 말살정책을 기도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저항을 철저히 막고 마지막까지 전쟁협력을 강요하려는 데서 나온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속에서 조선의 체육계는 나름대로 타협적인 민족주의 방략에 따라 민족체육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갔다.

우선 1931년 만주침공을 감행한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한편, 조선에 대한 수탈적 지배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체육을 통해 지역대립과 민족감정을 부추겨 분열화·우민화를 더욱 획책하였다.³²⁾ 실제로 민족체육의 기반이자 사회체육의 근간이 되어왔던 학교체육은 근대체육이나 경기를 보급시키는 역할은 물론 학교단위의 선수단 양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널리 인식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운동선수 중심의 학교체육은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운동정신을 망각하거나 각종 분규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³³⁾

1930년대에 들어와 학교체육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그러자 학교응원단의 풍기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하면,³⁴⁾ 아예 선수제도의 폐지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³⁵⁾ 학교체육의 이같은 폐단은 근대체육이 정상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결과의 하나였다. 사실 일제는 운동경기를 장려하여 이민족에 대한 모순보다는 민족내부의 지역감정, 대립감정을 부추켜 항일운동에 쏠리는 관심을 교묘히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주의사상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체육경기의 장려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운동경기의 과열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우리

32)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401~429쪽.

33) 《동아일보》, 1923년 10월 19일, 사설 〈체육과 경기〉.

《동아일보》, 1925년 7월 1일, 사설 〈운동경기의 정신〉.

34) 〈각학교응원단 풍기문제〉(《신동아》 29, 1934년 3월).

〈학교응원단 풍기문제에 대하여〉(《신동아》 30, 1934년 4월).

35) 정상윤, 앞의 글.

민족의 내부적 대립·파쟁 등을 선전하는 데 좋은 구실을 하였다. 동시에 각종 경기대회가 민족을 단결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판단하에 민족체육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32년 9월 〈야구통제령〉을 발표한 조치³⁶⁾나 1934년 1월에 〈축구통제령〉을 발표한 사실은³⁷⁾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일본체육인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조선체육협회의 ‘조선신궁대회’라는 종합경기대회를 통하여 국제대회의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식민체육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선 체육인의 탁월한 전력은 굴하지 않았다. 사실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을 마음껏 누를 수 있었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체육이었다. 당시 “일본팀과 싸울 때는 죽어도 이겨야 한다”는 서약을 했을 정도로,³⁸⁾ 일제 식민지체제에 대한 체육을 통한 조선 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사실상 민족운동의 한 방편이었다.

일제가 갖가지 방법을 통해 올림픽 참가를 저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에는 조선신궁대회의 마라톤경기에서 양정고보의 金恩培가 종전의 올림픽 기록을 무려 6분이나 앞당기는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조선민족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³⁹⁾ 그런데 1932년 제10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김은배와 權泰夏가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마라톤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36년 중일전쟁을 앞둔 일제는 조선통치의 근간을 황국신민화에 두고 神社參拜, 宮城遙拜, 國語(일본어) 등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孫基禎이 거둔 마라톤의 우승과 南昇龍이 동메달을 차지한 소식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국적이 아닌 일본 국적으로 국제경기에 참여함으로써, 민족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그 당시를 회고한 손기정은 “우승의 기쁨보다 나라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36) 《조선총독부관보》, 1932년 9월 1일, 〈야구의 통제 또는 시행에 관한 건〉.

37) 《동아일보》, 1934년 4월 13일.

38) 전영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황성기독교청년회-〉(《중앙일보》, 1971년 3월 25일).

39) 이길용, 〈조선스포츠의 회고와 전망〉(《해성》 10, 1932년 1월).

큰 것이었는지를 통감했다”고 술회한다. 손기정의 우승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마라톤 제패가’가 유행할 정도로 축제분위기와 민족의식이 고조되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지도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소식을 상해에서 접한 김구는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손기정에게 축하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는 우승을 하고 월계관을 쓴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는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을 일으켜 민족의 울분을 달래고자 하였다.⁴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주도했던 李吉用 기사를 비롯한 관련자 8명이 구속되었고 《동아일보》는 9개월간 정간되었다.

나. 민족말살책동과 민족체육의 수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발동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선일체’를 강조하여 조선민족의 황국신민화정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신사참배에 이은 황국신민서사와 창씨개명, 그리고 조선어 사용금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선 민족성의 말살을 획책하였다. 또한 전쟁인력의 확보를 위해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조선청년 수만 명을 지원병 형태로 전쟁에 끌어들이는가 하면, 1943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약 20만 명이 징집되었고, ‘학도지원병’제도가 강행되어 약 4,500명의 전문학교학생과 대학생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이와 함께 일제는 모집·징용·보국대·근로동원·정신대 등을 통한 조선인의 희생을 대량으로 강요한 노동력의 강제수탈을 시행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곧이어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하였다.⁴¹⁾

이러한 민족말살정책을 조선의 체육계에도 적용하기 위해 일제는 우선 학교체육정책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은 학교체조 교수요목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27년에 개정한 학교체조 교수요목은 유희와 경기

40)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전》(1976), 387~388쪽.

41)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0만 명에서 146만 명에 이른다(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34~37쪽).

중심이었으나, 1937년에는 군사능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1938년 3월에는 새로이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식민지 교육에서 민족말살정책을 본격화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요구에 부응하는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학교체조 교수요목이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國體明徴’·‘內鮮一體’·‘忍苦鍛鍊’으로서, 특히 인고단련은 체육교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학교체육에 ‘황국신민체조’를 도입하였다.⁴²⁾ 이는 종래의 학교체조에다 劍의 요소를 넣어 심신을 단련하는 형식으로 만든 체조로서, 일본의 武道精神을 함양함으로써 황국신민의 기백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띤 것이었다.⁴³⁾ 그 결과 이후 학교체조는 유희중심의 서구 체조가 사라지고 순 일본식의 체조가 행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체육은 자연히 중일전쟁 수행을 위한 국방능력의 제고를 위한 군사훈련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하면서 ‘국민정신총력연맹조선지부’를 설치하기에 앞서 조선인 민간단체의 일본화정책에 의거하여 조선체육회의 해산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전시체제의 순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선 체육단체의 통제방침을 세워 나갔다. 그러한 조치는 1938년 5월 12일 당시 ‘체육단체도 전면적 통제’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즉 총독부 학무국에서 조선의 체육운동을 철저히 강화하기 위해 체육기관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 하고 7월 초순경에 통제안을 발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또한 일제는 당시 조선내에 90여 개의 체육단체를 통합한다는 방침과 함께 전국의 도·군·읍의 체육협회를 통일적으로 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⁴⁴⁾

결국 1938년 7월 4일 ‘체육기관의 일원화’라는 미명하에 조선체육회가 당시 경성의 또 다른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흡수·통합되었다.⁴⁵⁾ 이로써 1920년 이후 조선체육계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었던 조선체육회는

42) 나현성, 앞의 책, 220쪽.

43)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における教育革新の全貌》(1938), 149~150쪽.

44) 《조선일보》, 1938년 5월 12일.

45) 조선체육회, 앞의 책, 88쪽.

일제의 강제에 의해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 뿐 아니라 민간단체로 구성된 체육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탄압이 가해졌던 것이다.

조선체육회가 강제 통합된 이후 일제는 조선내의 무도계 통합을 착수해 나갔다. 당시 황국신민체조가 일본의 고유한 검도를 변용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무도는 군국주의 체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 그러자 일제는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일본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도조직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이에 따라 1938년 7월 1일부터 조선인 유도단체인 조선무도관·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유도부·조선강무관·조선연무관을 동경 講道館의 조선지부로 통합하였다.

또한 1938년 9월 3일에는 전조선 사회체육 운동단체를 통제하기로 하고 그 지도기준과 통제계통을 발표하였다.⁴⁷⁾ 이때 발표된 지도기준에 따르면 체육운동단체는 대소공사의 구별없이 국민체력향상기관으로서 긴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강화하여 내선일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실행방법으로서 합동체조·체조대회·단체행진·무도경기의 실행 그리고 체육운동 경기회나 체육대회시에 궁성요배·일본기 게양 등을 하며 일본군가를 부르고 경기용어를 일어로 사용토록 하였다.

1941년 8월 1일 조선체육협회는 조선학생체육총연맹을 흡수하였다.⁴⁸⁾ 이 단체는 1937년 조선내의 전문학교·대학의 스포츠단체를 통제하고자 결성된 단체였는데, 이 시기에 와서 국민총력학교연맹의 발족으로 조선체육협회에 통합되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의 전시체제강화에 따른 체육통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종래 일본인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로서, 조선체육계를 통제해 왔던 조선체육협회가 1942년 2월 18일 조선체육진흥회로 통합된 것에서 확인된다. 조선체육진흥회의 발족은 당시 관서체육회를 비롯한 전국의 조선인 체육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⁴⁹⁾ 결국 조선체육진흥회는 일제 말

46) 《조선일보》, 1938년 5월 12일.

47) 《동아일보》, 1938년 9월 3일.

48) 《경성일보》, 1941년 8월 1일.

기 조선내 체육분야에서의 황국신민화를 주도하고 전시체제하의 국방체육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일한 통제기관이었다.

이후 조선의 체육은 정상적인 체육발달은 기대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전쟁 준비를 위한 체력증강·전투훈련만이 체육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졌다. 실제로 일제는 1942년 4월 〈朝鮮學徒體育大會實施要綱〉과 〈學校體育刷新指導方針〉을 발표하였는데, 그 골격은 승패를 배척하고 황국신민의 자질향상과 전력증강에 맞는 경기만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⁵⁰⁾ 이 조치로 모든 체육대회의 개최나 참가는 조선총독부의 승인이나 허가없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각 지방체육단체에 의해 개최되었던 전조선 체육대회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학교단위의 해외원정경기도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울러 1942년에는 만 18세와 19세의 조선청년 남녀에게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전시인력확보를 도모하였다.⁵¹⁾

1943년 5월 15일에는 〈決戰下 一般國民體育實施要綱〉을 다시 제정하여 일반인들에게까지 체육 통제를 단행하였다.⁵²⁾ 이 요강은 1944년부터 시행된 징병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에 목표를 두고 반포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1943년부터 전시체력의 증대를 위해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에게 남녀 체력장 검정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남자는 체력장 검정종목(단거리·장거리·도약·투척·운반·매달리기)과 체조·행군·육상·수영·씨름·총검술·사격·해양훈련·항공훈련·기갑훈련·기마·雪上운동·빙상운동이 채택되었으며, 여자는 체력장 검정종목(경보·도약·투척·운반·도수체조)과 체조·행군·육상·수영·구기·설상운동·빙상운동이 채택되었다.⁵³⁾ 이러한 조치는 전조선의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고 대비하기 위한 기도로서, 민족체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민족말살책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조선 체육은 정상적인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였

49) 《경성일보》, 1942년 2월 15일.

50)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편, 《현행조선교육법규》(조선행정학회, 1942), 206쪽.

51) 《매일신보》, 1942년 3월 1일.

52) 경성일보사, 《朝鮮年鑑》(1943), 539~540쪽.

53) 경성일보사, 위의 책, 539~540쪽.

고 일제에 의해 민족체육의 존립 기반조차 말살됨으로써 일대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각종 경기대회에서 조선인들이 보여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작지만 조선인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1940년 부산에서 개최된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심판의 부정에 대항하여 조선인 중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⁵⁴⁾

결국 일제하 민족체육은 암울했던 민족수난 시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지성과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귀중한 버팀목이 되었다. 동시에 국가를 잃은 조선인들에게는 경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희망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체육을 통한 일제에 대한 저항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일제하 독립운동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제하 근대무용의 시련과 성장

(1) 일제하 전통무용의 계승과 시련

가. 궁중무용의 계승과 시련

1910년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 통치체제로 재편하는 가운데 황실의 무용조직과 활동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미 궁내부 산하의 掌樂院이 1897년(고종 광무 원년)에 敎坊司(정원 772명)로 개편했다가 1907년(순종 융희 원년) 掌樂課(정원 305명)로 다시 바꾸었다가, 합방 후 雅樂隊로 개편하고 그 인원도 189명으로 축소하였다.⁵⁵⁾ 또한 侍從院에 속했던 吹打內吹와 細樂內吹의 일부가 아악대에 편입하였다. 왕가의 제향을 위해 축소된 규모였지만 아악대의 존속은 조선궁중무용의 계승을 위해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실제로 악원의 명맥 유지에 이곳에 종사한 악인의 연면한 승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궁중무용의

54) 이학래, 앞의 책, 213~214쪽.

55) 《순종실록》 권 7, 1915년 5월 26일.

단절을 막을 수 있었다.⁵⁶⁾

1910년 이후 처음으로 궁중무용이 공연된 것은 1923년 3월 순종의 50회 탄신일 때였다. 당시 축하연주를 위해 무동을 선발했는데, 제1기 아악생 중에서 2인, 2기 아악생 중에서 9인, 아악수에서 2인 등 모두 13인을 뽑았다. 아악수 2명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14세~17세의 어린 학생들로 용모나 체격이 단정한 자들이 뽑혔다. 무용을 지도한 악사로는 金甯濟·咸和鎭·李壽卿 등이었다.

당시 전수시킨 呈才로는 處容舞·春鶯囀·鳳來儀·寶相舞·拋毬樂·響鈴舞·壽延長·萬壽舞·舞鼓·長生寶宴之舞·演百福之舞·佳人剪牧丹 등 12종이었다.⁵⁷⁾ 위의 12종 정재무의 분담은 처용무는 金桂善·高永在·박노아·박성재·李炳星이, 기타 11종의 정재는 어린 학생이 분담하였는데, 춘앵전은 李炳祐가 전담하였다.⁵⁸⁾ 《동아일보》에 의하면, 창덕궁의 탄신연에서 아악대의 고악과 무동의 정재를 크게 보도하였는데,⁵⁹⁾ 이미 3월 17일에는 인정전에서 순종이 왕비와 함께 雅樂과 舞童呈才를 관람하였다.⁶⁰⁾

무동을 대상으로 한 정재교습은 1926년 순종황제의 승하와 일본 천황의 서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인 1927년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아악부에서 두 번째 정재 재현은 1930년 7월의 일이었다. 영친왕 내외분이 환국할 때에 맞춰 이루어졌다. 당시 궁중정재는 모두 50여 종이었으나 선을 보인 것은 10종이었다. 즉 처용무·춘앵전·무고·보상무·봉래의·가인전목단·향령무·장생보연지무·수연장·萬壽舞 등이었다. 궁중무용은 그 후 갈수록 위축되었다가, 1936년경에는 처용무·향령무·장생보연지무 만이 전수되는 등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통치가 파쇼체제로 전환되는 1930년대 이후 궁중무용의 존재는 갈수록 축소와 소멸의 길로 접어들지 않

56) 근대 궁중정재 및 일무의 전승은 한말과 일제 초기의 아악사장 咸在鎭·明完璧·金甯濟·咸和鎭 등과 아악사 李壽卿 등에 의해 완벽하게 전승되었다(성경린, 〈현대 속의 전통계승〉, 《한국무용사》 I, 대한민국 학술원, 1985, 411~413쪽).

57) 金千興, 〈궁중무의 계보〉(《춤》, 1977년 5월호).

58) 金千興, 〈舞踊〉(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六百年史》 4, 1984), 752쪽.

59) 《동아일보》, 1923년 3월 25·26일.

60) 《순종실록》, 1923년 3월 17일, 부록.

으면 안되었다.

궁중무용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몇몇 궁중악사들에 의해 궁중무용의 전통과 제례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제례악이었던 종묘의 佾舞가 당시 아악사장 김영제에 의해 1930년대 장악원 소장의 《時用舞譜》를 기초로 재정리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종전까지 약식으로 행하던 일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⁶¹⁾

나. 민간무용의 계승과 시련

민간무용은 첫째 관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궁중정재의 계통을 이끌어 온 것, 둘째 순수 민속무용으로 민중 속에서 발생되어 전승한 승무·살풀이 등 고도로 세련된 것, 셋째 토속성을 바탕한 강강술래, 넷째 각처의 가면극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첫째와 둘째는 주로 민간에서 관기들에 의해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일합방으로 종래의 악원제도와 여악제도가 폐지되고 왕실에 예속되었던 女伶과 무동들은 모두 해산되었다. 이렇게 해산된 악인과 여령, 그리고 무동들은 직업을 바꾸는 하면, 일부는 민간조직 단체에 흡수되어 후진양성 또는 무대에서 직접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단법인 韓國正樂院이었다. 이 단체는 1910년에 발족한 정악연구단체인 朝陽俱樂部가 1912년에 朝鮮正樂傳習所로 개칭된 것이었다. 그 분원으로 여기에게 가무를 교습시키는 여악분원을 두었는데, 이 분원이 1914년 새로 발족한 조선기생조합의 모체가 되었다. 이곳은 정악전습소장 河圭一이 조합의 통수가 되어 1940년대까지 예능지도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때 전수된 춤으로는 춘앵전·舞山香·무고·검무·項莊舞·포구락·가인전목단·남무·獻天花·獅子舞·船遊樂·고구려무·蓮花臺舞·봉래의·수연장·五羊仙 등이 있다. 당시 민간무용의 주역은 정악원에 소속된 기녀들이었다. 이들은 본래 궁중정재를 맞이하여 각처에서 진상되었으나, 어느 곳보다 평양기생이 많이 상경하였다. 진연에 참가하여 정재가 끝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녀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서울에 머물면서 기업을 차리는

61) 성경린, 앞의 글, 414쪽.

것이 상례가 되었다. 鄉妓가 서울에서 기업을 행하는 자는 대개 포주가 없는 ‘無夫妓’였고, 京妓는 포주가 있는 ‘有夫妓’가 많았다.

이때 정악원의 학감 하규일이 무부기를 모아 무부기조합을 만들어 ‘정악전 습소 분교실’이라 하여 다동에 설치하였다. 이에 경기들이 유부기조합을 만들어 광고에 설치하였다. 무부기조합은 친일파였던 宋秉峻이 지원한 데에 비해, 광고조합은 약방기생의 후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항하였다. 이러한 기생조합은 점차 7~8개로 늘어났고, 조합 명칭도 일본 교방의 이름을 모방하여 1914년부터는 券番이라 불렀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는 기생조합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고쳐져 茶洞組合이 조선권번, 광고조합이 한성권번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 기생들의 예능활동도 점점 위축되어 요릿집의 작은 무대에서 공연되었고, 승무·검무·춘앵전·사고무·장생보연지무·무고 등에 불과한 내용이었다. 이들 권번은 각기 동기를 교육하는 기생학교를 부설하여 운영하였다.⁶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실과 양반층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무용이 민간무용과 함께 접촉하는 과정에서 점차 민간무용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당시 시간의 제한을 받아 원형 그대로 공연하지 못함에 따라 축소·변질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서구식 무대로 만들어진 원각사에서 행해진 관기들의 궁중무용은 하나의 독립된 춤이 아니라, 노래와 춤의 혼합된 예술성보다는 의식미, 세련된 기교보다는 고운 때깔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한편 기녀들의 민속무로는 승무·立舞·농악무·살풀이 등 전형적인 민속무였고, 종전까지 야외무대에서 상연되던 탈춤·가면무극 등이었다.⁶³⁾ 당시 기생들의 이러한 무용은 단성사·조선극장·우미관 등이 건립됨에 따라 온습회란 명목으로 발표회를 열어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뒤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요릿집 등이 폐쇄되고 권번이 해산됨에 따라 그 무용활동은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1908년(순종 2)에는 최초로 국립극장 圓覺寺가 개장되었다. 이 곳을 통해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이 한 자리에서 함께 공연되어 한국 무용사상 한

62) 성경린, <음악>(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3) 조원경, 《무용예술》(해문사, 1967).

시기를 굳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원각사는 그 후 신무용을 배태한 온상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⁴⁾

또한 1912년에 朴承弼이 光武臺를 건축하여 유일한 구극을 위한 극장을 세웠는데, 주로 고전음악과 광대 줄타기, 기생의 가무·채담·검무 등과 춘향전·심청전·홍부가·백상화가 등 구극이 상연되었다. 광무대는 구극공연을 위주로 했으나, 공연종목 중에는 기생의 가무와 검무가 들어 있긴 해도 춤의 종류는 분명치 않았다.⁶⁵⁾ 그 후 1930년까지 화재로 소진될 때까지 구극을 계속하였다. 광무대의 소실로 궁중정제는 민간으로 파급되었다.

1902년 協律社가 원각사 무대에서 공연할 때 민속무용의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민속무용이 무대에서 공연된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민속무용으로는 승무·농악·살풀이 등과 가면무극이 상연되었는데, 공연보다도 명창대회격인 판소리 연주회에 곁들여진 형태였다. 그 뒤 광무대·단성사와 1922년에 개관된 조선극장 등에서 경기도 명창들에 의해 가야금 병창·채담·병신타령·줄타기 등이 공연되었으며, 무용으로는 승무·검무·한량무 등이 공연되었다.

당시 민속무용의 주역은 韓成俊이었다. 그는 1930년에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하고 춤을 지도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무용활동을 시작하였다. 1934년에는 조선무용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이듬해 부민관에서 한성준 무용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때 공연된 작품으로는 승무·신선무·검무·한량무·살풀이춤·농악무 등이었으며, 새로 등장된 춤으로는 婆羅舞·사공무·鶴舞 등이었다. 당시 한성준 밑에서 배출된 무용가로는 이강선·장홍심·韓英淑·강선영 등으로 이들은 1940년경 동경 등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하여 한국무용을 일찍이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전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서는 민간 부녀자들에 의해 토속성을 바탕한 강강술래가 시행되었고, 해서지역의 탈춤, 북청의 獅子놀이, 강릉의 官奴놀이, 경기의 山臺놀이, 경상좌도의 야유, 경상우도의 五廣大 등의 가면극이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었다.

64) 성경린, <현대속의 전통계승>(대한민국 학술원, 앞의 책), 429쪽.

65) 金千興, <舞踊>(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51쪽.

(2) 일제하 신무용의 출현과 성장

新舞踊이란 개항 이후 신문물과 함께 외국에서 유입된 서구 무용 등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 뒤 국내에서 창작된 것까지 포함하여 신무용이라 하였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무용이란 “思潮의 바탕을 현대적 감각에 두고 현대무용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이념과 방법으로 새로운 한국무용을 창조해 가려는 활동이자 그 체제이며, 그 결과로서 顯現되어진 실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⁶⁾ 그러한 의미에서 신무용이란 단순히 외국의 무용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의 무용이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21년 노령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유학생들이었다. 당시 유학생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음악과 러시아의 민속무용을 추어 관심을 끌었는데, 이것이 외국의 민속무용이 소개된 최초였다.⁶⁷⁾ 이때부터 러시아의 민속무용인 ‘코팩댄스(gopak dance)’가 유행되어 각종 음악무도회에 등장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체육댄스와 사교춤 등이 전파되어 유행하였다.⁶⁸⁾ 또한 당시 소개된 서양의 춤은 코팩댄스만이 아니라, 화란댄스·서반아댄스·유희댄스·흑인댄스 등이었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춤은 빠르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춤이라는 것이 기생·광대·재인만이 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정도였다.

당시 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무대무도와 사교무도가 그것이다. 무대무도 또는 무대무용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으로 평가되어 그나마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사교무도 내지 사교춤에 대한 당대의 여론은 매우 비판적일 뿐 아니라 부정적이었다. 사교무용을 예술적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식민지적 상황을 망각하고 제국주의를 흉내내는 타락한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다.⁷⁰⁾ 사실 당시 소개되었던 서양의 춤은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춤의 본질면에서는 갖가지 민속춤이나 놀이, 그리고 사교적 차

66) 안제승, 《한국무용사》Ⅱ-한국예술사총서 IV(학술원, 1985), 447쪽.

67) 《매일신보》, 1921년 4월 30일.

68) 《매일신보》, 1923년 6월 2일.

69) 《동아일보》, 1923년 10월 18일.

70) 《동아일보》, 1923년 5월 26일.

원의 춤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춤이 극장 무대에서 추어졌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26년 3월 21일부터 3일동안 경성공회당에서 벌어진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꾸(石井漠, 본명 石井忠純)의 공연은 그 이전까지의 외래 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⁷¹⁾ 당시 언론에서도 그를 현대무용가로 소개하는가 하면,⁷²⁾ 세계적 무용가로 묘사한 데서 알 수 있듯이,⁷³⁾ 그의 무용은 현대무용이자 예술무용이었다는 데서 무용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의 공연은 종전까지 연락적·장식적 가치로서만, 그것도 다분히 필요악적인 성정으로 이해해 왔던 종전까지의 무용관을 벗어나,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춤이었다. 더욱이 이 공연을 계기로 형성된 인맥과 여기서 파생해 나온 문하들에 의해서 한국 신무용사의 태반이 점철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를 신무용사의 기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⁷⁴⁾

실제 이시이의 공연은 조선내 무용지망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崔承喜가 무용에 투신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도 이 공연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⁷⁵⁾ 또한 인기절정의 정구선수로 활약하던 趙澤元이 최승희보다 조금 뒤에 선수생활을 청산하고 이시이의 문하로 들어간 것도 역시 이 공연에서 받은 깊은 감명 때문이었다.⁷⁶⁾ 이시이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내선일체라는 조선총독부식의 대의명분을 앞세워 조선 여자 2~3명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⁷⁷⁾ 어쨌든 최승희 한사람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이는 한국 신무용사의 태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가. 최승희의 무용과 활동

71) 《경성일보》, 1926년 3월 23일.

72) 《매일신보》, 1926년 3월 16일.

73) 《매일신보》, 1926년 3월 21일.

74) 안제승, 앞의 책, 455쪽. 한편 안제승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조동화는 이시이의 경성공연을 신무용 공연으로 풀이하고 있다(조동화, 〈신무용40년사〉, 《한국연예대감》, 성락문화사, 1962, 71쪽).

75) 최승희, 《나의 자서전》(東京: 日本書藏, 1936), 39~40쪽.

76) 안제승, 《신무용의 본질과 요람기가 남긴 영향》(서울: 세기사, 1972), 37쪽.

77) 《경성일보》, 1926년 3월 21일.

숙명여고를 졸업한 최승희는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에 진학하여 음악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926년 경성에서 세계적인 무용가 이시이의 공연을 보고 무용가로서의 입신을 결심하였다. 1926년 5월 무용을 위해 동경으로 건너간 그녀는 3년여 만에 주역급 무용수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1929년 이시이의 실명으로 고향에 돌아와 연구소를 개설하면서 1932년까지 세 차례 공연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민족무용의 현대화’를 표방한 ‘영산무’를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인도인의 비애’, ‘해방을 구하는 사람들’, ‘방랑인의 설움’과 같은 현대 무용 계열의 작품을 선보였다.⁷⁸⁾

이들 작품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그녀는 다시 1933년 3월 이시이문화에 재입문하여 1년여 만에 청년회관에서 전통과 현대무용의 접목을 꾀한다는 의도에서 창작품 ‘에헤야 노아라’가 대성황을 이루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인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⁷⁹⁾ 1936년 말부터 4년간 세계무대로 진출한 그녀는 유럽에서 초립동·화랑무·신로심불로·장구춤·춘향애사·즉흥무·옥저의 곡·보현보살·천하대장군 등 신무용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에 그의 명성은 아르헨티나의 상카 등에 비유되면서 세계 정상의 무희로 지목되었다. 그러한 명성으로 1938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무용경연대회에서 라반·비그만·리파르 등과 함께 나란히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파리 무대의 후광을 업고 그녀는 뉴욕에서 당시 NBC와 제휴하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공연하였다

1940년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최승희의 작품이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한 일제는 향후 그의 작품에서 3분의 1을 일본 소재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굴복하여 일본 전통적인 소재를 작품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계속되는 일제의 압력을 벗어나고자 그녀는 북경으로 연구소를 옮겨 중국 고전을 바탕으로 작품발표를 하였으나 옛 영광을 되살리지는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에게 허용되는 속죄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

78) 이하 내용은 안제승, 앞의 책(1985), 459~469쪽.

79) 《조일신문》·《매일신문》·《독비신문》·《도신문》, 1934년 5월 22일.

름아닌 이제까지의 최승희 무용을 지양하고 코리언발레를 창건하는 일”이라 하여 언론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그녀는 결국 친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 하다가, 남편 安漠과 함께 월북하였다. 북으로 간 그녀는 1950년까지 ‘반야월성곡’·‘춘향전’ 등 두 편의 무용곡과 소품 ‘노사공’ 등 한 편을 만드는 데 그치는 위축된 창작활동을 하였다.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최승희무용연구소 소장으로 화려하게 비쳐지기도 하였으나, 혁명정신의 결여가 비판되고 끝내는 반동적 부르주아예술의 표본으로 낙인찍혀 ‘인민배우’라는 예술인 최고의 지위에서부터 격하되어 쓸쓸한 생을 마감하였다.

나. 조택원의 무용과 활동

휘문고와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상업은행 소속 정구선수였던 조택원은 1927년 11월 두 번째로 조선에 공연을 온 현대무용의 거두였던 일본의 이시이의 공연을 관람하고 무용에 입신하게 되었다.⁸⁰⁾ 1928년 1월 동경으로 건너간 그는 본격적인 무용수련을 쌓았는데, 1929년 봄 처녀작 ‘어떤 움직임의 매혹’을 동경에서 발표하여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시이무용단의 일원으로 동양의 주요 도시를 순연하였다.

1932년 이시이가 실명하면서 독립을 결심하고 경성으로 돌아온 그는 중앙보육학교 무용교수로 취임하는 한편, 무용연구소를 개설하고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⁸¹⁾ 1933년 2월 ‘승무의 인상’·‘우울’·‘땅에 바친다’·‘사랑의 슬픔과 기쁨’ 등으로 제1회 작품발표회를 갖는 것을 필두로 해방 이후까지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⁸²⁾ 그 역시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구미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무용세계는 현대무용적 성향을 띠고 작품형상은 무용시의 흐름을 보였으나, 독자적 창조활동을 벌이면서부터는 한국적 소재에 눈을 돌려 우리 춤의 멋과 흥을 현대감각으로 여과·수용하면서 사색적이고 명상적이면서도 서정이 넘치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80) 조택원, 《가사호집》(서문당, 1974), 34쪽.

81) 조택원, 〈나의 이력서〉(《한국일보》, 1976년 4월 6일).

82) 志村操, 〈조택원무용평〉(《경성일보》, 1933년 2월 3일).

다. 그 밖의 인물들

이처럼 일제하 신무용의 태동은 특히 1926년 이후 최승희·조택원의 무용 활동으로 상징지를 수 있다.⁸³⁾ 그렇다고 이 무렵 조선의 무용가가 이들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조선의 무용수 가운데 가장 빨리 신무용을 접한 인물은 裴龜子였다. 1915년, 1916년에는 일본 무용계의 거두였던 덴카츠(松旭齋天勝)가 경성에서 공연을 하였다.⁸⁴⁾ 그 당시 덴카츠의 제자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배우자는 1918년 경성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⁸⁵⁾ 그녀의 출발이 순조롭게 나가는가 했으나, 1926년 덴카츠예술단에서 빠져나와 조선내에서만 활동을 하였다. 그는 고유한 전통무용의 현대화라는 소신과 서양 무용의 적극적인 수용에 관심을 가지고 무용활동을 하였다.⁸⁶⁾

金敏子是 최승희의 적선동·서빙고 시대의 문하로서, 신무용에 입문했던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는 유일하게 최승희를 따라 일본에 가서 최승희의 뒤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 때문에 공연에 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최승희가 가정에 신경쓰지 않고 무용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김민자의 덕택이었다. 몇 년이 흘러도 해외공연에서 돌아오지 않자, 김민자는 1938년 조택원의 귀국공연에 파트너가 되어 공연하였다. 하지만, 공연의 성과는 탐탁하지 않았다. 곧이어 만난 최승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끝내 무용을 포기하고 조선악극단에서 안무자로 활약하였다.⁸⁷⁾

다카가 세이코(高田セツ子)에 사사했던 朴外仙은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1935년 제1회 발표회를 가진 후 곧바로 일본의 언론인과 결혼함에 따라 해방이 될 때까지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다. 박영인은 미국인 루돌프 에플에게 무용을 배우고 그 뒤 무음악무용을 연구하여, 무용은 인간의 감정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까지도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의 베를린 국립극장에서 무용발표회를 가졌으며, 1937년 독일 국립무용학교를 졸업한 후 이태리·헝가리 등지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고, 《무용예술의 연

83) 안제승, 앞의 책(1985), 458쪽.

84) 《매일신보》, 1915년 10월 9·12·17일, 1916년 9월 5일.

85) 《매일신보》, 1918년 5월 14일.

86) 유민영, 〈일제하의 극장문화와 슈퍼스타 배우자〉(《객석》 1986년 2월호).

87) 위와 같음.

구》라는 저서를 남겼다. 이 밖에 장추화·金白峰·이숙예·金美華 등이 최승희 연구소와 무용단에서 활동을 하였고, 陳壽芳이 조택원에게 사사하고, 趙勇子가 이시이연구소에서 활동하였다.⁸⁸⁾

〈沈勝求〉

5. 연극·영화

1) 1910년대－전통극과 신파극

우리의 근대문화는 매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근대문화가 꽃필 수 있는 20세기에 일제의 억압과 이념적 분열·전쟁·혁명·군사독재로 점철된 속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극과 영화만 하더라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저항과 회피를 주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연극과 영화가 목적성을 띤 이념성의 경직된 방향으로 흐르게끔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추구한 지식인들은 연극과 영화를 향거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강했고, 대중예술을 추구한 이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저급한 오락성만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연극과 영화가 양극단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보편성에서 뒤지고 따라서 걸작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연극과 영화에 대한 시야를 비좁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1910년대 이후의 우리 연극은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신파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온 전통극, 이를테면 판소리라든가 거기서 분화된 창극·가면극·굿놀이·꼭두각시극·재담극, 그리고 민속무용과 민요 등이 한 무대에서 엮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한국침략 과정에서 묻어 들어온 신파극이 새로운 연극양식으로

88) 안제승, 앞의 책(1985), 458~459쪽.

대중에 어필했지만 한국 대중에 익숙한 전통극 역시 신파극 못지 않은 세력으로 몇 개 되지 않는 극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1910년대 초 서울에는 연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극장이 光武臺 · 團成社 · 長安社 · 演興社 정도 있었는데, 연흥사 한 곳에서만 신파극이 공연된 반면에 나머지 세 곳 극장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극만 매일 무대에 올랐던 것이다. 광무대 등 세 극장무대에서 1년 열두 달 거의 쉬지 않고 전통극을 공연했는데, 그 내용은 전술한 바 있듯이 판소리 · 민요 · 굿놀이 · 가면극 · 인형극 · 재담극 그리고 국악연주 등이었다.

전통극을 주도한 사람들은 李東伯 등과 같은 판소리 명창과 朴春載 일행, 그리고 기생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 演戲者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당시대에는 券番이라는 종합 국악예술학교와 같은 양성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만도 한성권번, 大同券番 등 네 개나 있었고 평양 · 부산 · 광주 · 인천 등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주 · 목포 등 웬만한 중소도시들에도 권번은 반드시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유럽의 콘서트바토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당시에는 기생도 예술활동만 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에 2,000여 명 가까이 되었다. 그만큼 권번이란 것은 예술학원 성격의 한국적 콘서트바토리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극은 인적 자원이 풍부했는데 다만 레퍼토리가 단조로웠던 점이 하나의 취약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통공연예술은 유산이 뻗은 것이고 새로운 창작이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일 밤 관중이 광무대 · 단성사의 객석을 메웠던 것은唱과 춤 등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특히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다름아닌 朴承弼이었다. 그는 극장경영자에 불과했지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서 광무대와 단성사를 전통극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그 시대에 박승필이 없었다면 전통극의 명맥이 과연 이어졌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반면에 일본침략 과정에서 묻어 들어온 신파극이 시작된 것은 1911년 초 겨울이었다. 19세기말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던니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3만여 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 부산 · 목포 등 항구도시에 정착했다. 주로 군인 · 경찰 등 관리와 상인들이 정착하

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극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체로 1907년경부터였다. 서울에만도 京城座・御成座・壽座 등이 문을 열었고 일본 교토・오사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파극단들이 재한 일본인을 위한 공연을 갖고 했다.

거기서 어깨너머로 신파극을 배운 林聖九가 젊은 동료들 모아 혁신단이라는 최초의 신파극단을 만든 것이 1911년 초겨울이었다. 이들이 〈불효천벌〉이라는 작품을 어성좌에서 공연한 것이 1911년 12월이었는데, 이것이 한국신파극 더 나아가 신극의 효시였다. 당시 관중은 재래의 전통극과 전혀 다른 신파극을 보고 신기함을 느꼈지만 초기에는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파극에 익숙해진 관중이 그것을 즐겨 감상했다. 신파극이 조금씩 인기를 끌면서 그것을 일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배우와 제작자들이 늘어났고 극단도 몇 개 더 생겨났는데, 이를테면 李基世 주도의 유일단이라든가, 尹白南・趙一齋 주도의 文秀星 등이 그런 유형의 단체였다. 그 외에도 몇 개의 신파극단이 부침했지만 역시 1910년대 신파극을 주도한 인물은 임성구・이기세・윤백남 등이었고 金陶山이라든가 金小浪・高秀喆 등이 배우와 극단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신파극의 레퍼토리와 연극방식은 일본 신파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고,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라고 한다면 권선징악・盡忠竭力・민지개발・풍속개량 등의 일종의 계몽성을 띤 것이라 하겠다. 신파극이 전통극보다는 신선했기 때문에 관객이 몰리기도 했지만 인기 레퍼토리라 할 〈장한몽〉이라든가 〈쌍옥루〉・〈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작품이 일본 것을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涕淚性 짙은 감상물로서 한국관객의 정서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극과 신파극이 연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상대방의 인기를 공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질이 다른 연극양식이 융화하기는 힘들었다. 아무리 영화의 인기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두 양식의 연극은 곧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1910년대는 영화의 인기가 만만치 않았었다. 1903년에 동대문 밖 경성전기회사 창고의 한 귀퉁이에서 영미연초회사의 담배광고용으로 돌리기

시작한 활동사진이 1910년대 와서는 제법 좋은 극영화까지 수입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가령 무성영화이긴 했지만 <퀴바디스>(1911)를 비롯하여 <폼페이 최후의 날>·<나폴레옹 일대기>·<맥베스> 등은 대중의 흥미를 끌고도 남음이 있었다. 신파극 관객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자 신파연극인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영화를 끌어들여서 소위 連鎖劇, 즉 키노드라마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 첫 번째 작품이 1919년 10월 단성사 무대에 올려진 김도산의 <義理의 仇鬪>였다. 연쇄극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사이사이 표현이 어려운 장면들을 영상막에 비추는 방식을 말한다. 연극인들에게 있어서는 연쇄극이 기발한 연극형식으로 비쳐졌는지 몰라도 식자층으로부터는 은그릇에 설렁탕을 담은 것에 비유될 정도로 신파극의 타락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저급한 대중에게는 그런대로 연쇄극이 먹혔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까지도 그런 연극형식이 이따금 무대에 올려진 바 있었다. 다만 한국 영화사 측면에서 보면 <의리적 구투>가 창작극영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2) 3·1운동이후~1920년대—소인극운동

신파극은 3·1운동에 따른 여러 분야의 획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겨우 연쇄극이나 만들 정도였기 때문에 곧바로 젊은 아마추어 연극인들에게 밀려나서 번두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신파극으로서는 3·1운동 직후가 최대의 시련기였다.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 기운이 돌아나면서 일본 신파의 아류인 신파극은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

연극분야에서만 보더라도 玄 哲과 같은 선구자가 나타나서 서양근대극에 대한 소개와 번역대본도 내놓았으며 배우양성학원도 설립하는 등 새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일본 유학생도 많이 늘어나서 서구연극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극연구단체인 극예술협회(1920년 봄)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 단체를 이끈 주역은 와세다 대학에서 영미희곡을 전공한 金祐鎭이었다. 때마침 동경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노동자단체인 동우회와 형설회 등에서 극예술협회원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모금운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며 따라 동우회

순회극단이 출범했다. 김우진이라든가 洪海星 등이 素人劇運動의 리더였고 젊은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연극운동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마추어연극이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에 대중이 크게 호응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청년학생들이 너도나도 소인극단을 만들어 민중계몽에 나섰다, 그런 단체들이 수십 개나 되었다. 마치 요원의 불꽃처럼 소인극운동이 퍼져나갔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민중의 호응 때문이었지만 《조선일보》·《동아일보》등 언론과 불교·기독교·천도교 등 종교계의 후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이 내건 주제는 솔직히 자주독립이었고 부수적으로 신교육 고취라든가 금주·금연 또는 물산장려 등을 내걸었다. 따라서 일본 관헌이 그런 것을 보고만 있을 리 만무했다. 그들이 탄압의 손길을 뻗친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소인극운동은 1925년을 고비로 급속히 수그러들게 되었다. 이러한 소인극운동은 결국 학교 안에서의 학생극 활동으로 그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

한편 청년 학생들의 소인극단체 중에서 1923년 동경에서 조직되어 여름에 조선극장에서 〈古植〉(박승희작) 등으로 창단공연을 가진 토월회만은 곧바로 전문극단화 되어 1920년대에 있어서 과도기적 신극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즉 토월회는 朴勝喜 주도로 토월회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극을 부분적으로나마 이식해보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다만 낭만극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徐月影·朴齊行·卜惠淑·石金星 등 유능한 배우들을 배출했고 1930년대의 극예술연구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다.

3·1운동 직후에는 또한 김우진과 같은 뛰어난 연극인도 나타났는데 그는 서양의 첨단적 극작가들과 연극사조를 연구해서 이 땅에 선진 연극이론과 작품을 소개했다. 더 나아가 그는 표현주의 사조라든가 버나드 쇼의 개혁 사조 등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으로 실험도 했다. 당시 문단에서는 이제 겨우 리얼리즘을 실험하고 있을 때, 그는 그런 사조를 한단계 넘어선 표현주의를 실험하여 〈산돼지〉와 같은 희곡을 남길 수가 있

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신파극과 전통극은 대단히 시련기였다. 왜냐하면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서양문물을 조금씩이나마 호호한 사람들이 고루하고 진부한 전통극과 신파극을 외면한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다만 박승필과 같은 고집스런 극장경영자가 있었고, 또 기량 뛰어난 남성명창과 기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극은 그래도 명맥을 이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극도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로 대중을 붙잡으려니 정도에서 벗어나는 공연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지 않았다.

신파극의 경우는 윤백남이 1920년대 초기까지 극단운영을 했지만 곧바로 영화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김도산·김소랑·卞基鍾 등이 리더로서 聚星座와 같은 몇 개의 극단을 이끌었다. 그것도 중앙보다는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유랑극단으로서 였다. 다행히 신파극이 시련을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아갔으며 王 平과 같은 전문 극작가도 탄생시켰다. 신파극에서 전문 극작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점차 일본신파의 답습에서 벗어나 토착화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것은 신파극단 취성좌로부터 였고 1929년에 창단된 朝鮮研劇舍라는 극단부터는 더욱 진일보하게 된다. 池斗漢이라는 연극매니저가 만든 연극사는 연극을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는 지두한이 자신들의 손으로 극장을 하나 짓는 것을 목표로 삼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극단은 90여 명으로 구성된 맘모스 단체로서 음악연주단을 따로 둘 정도였다.

이 시기의 영화도 1910년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었다. 가령 김도산의 신극좌가 연쇄극을 만든 이후 여러 편의 작품이 선을 보였었는데 이기세가 만든 〈知己〉라는 연쇄극은 한국인 촬영기사 李弼雨의 작품이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영화의 진진은 尹白南이 직접 감독해서 만든 〈月下의 맹세〉가 나오면서부터였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한국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까지 한 최초의 창작 무성영화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일본인(早川松太郎)이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었고 단성사 지배인 朴庭顯도 〈장화홍련전〉을 만들어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극영화들이 속속 성공을 거두면서 조선키네마주식회사도 생겨났는데 그것이 1924년 부산에서였다. 이 영화사는 윤백남 감독

의 〈雲英傳〉 등을 만들었는데, 羅雲奎가 가마꾼으로 데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마꾼으로 데뷔한 나운규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주연한 민족영화 〈아리랑〉이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역사적인 개봉을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큰 성공을 거둔 나운규는 계속해서 〈풍운아〉·〈들쥐〉·〈금붕어〉 등을 만들었고, 1927년에는 직접 나운규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잘 있거라〉·〈옥녀〉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좋은 영화는 대부분 나운규가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李慶孫이라든가 이필우·李奎堯 등 신인감독들이 등장하여 영화계의 폭을 넓혀갔다. 이 시기에 돋보이는 감독으로는 〈옥녀〉·〈잘 있거라〉·〈병어리 삼룡〉 등을 만든 尹逢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배우로 주목을 받은 사람은 여배우로는 李月華·복혜숙·金蓮實·申一仙 등이었고 남자배우는 李錦龍·나운규·沈 薰 등이었다.

3) 1930년대－대중극·신극과 영화의 발전

1930년대 들어서면 연극과 영화의 양과 질이 향상된다. 그 이유는 일본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해서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의 교육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관객수준도 그만큼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기술적 수준도 나아질 수밖에 없었고 자본의 축적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전통극을 보면 唱劇이 괄목할 발전을 한다. 圓覺社 시대에 처음 시작된 창극이 193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의 연극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적 자원과 극장조건,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 등이 바로 그러한 배경이라 말할 수 있다.

가령 1930년대 들어서면 우선 제대로 된 전문극장이 두 개씩이나 생겨나고 인적 자원도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은 유학생들의 귀국과 그 동안 훈련받은 예술인들이 극장무대를 만나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연극을 후원하는 사람도 나타났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먼저 전통극 분야를 보면 호남지주 金鍾翊이 서울에다가 큰집을 한 채 마련해서 명창들에게 마음껏 쓰도록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의 명창들이 모이게 되고 朝鮮聲樂研究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1934년의 일이었는데, 이듬해(1935년)에는 동양극장과 부민관이 개관함으로써 원각사 이후 실험해온 창극을 그런대로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창극이 정립되는데는 신극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작용을 한 것이다. 사실 명창들은 연기와 연출을 모르고 무대미술가도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극 전문연출가와 무대미술가 등이 명창들을 지도해서 창극 실험 30여 년만에 오늘에 전승되고 있는 창극의 기본틀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朝鮮唱劇團·東一唱劇團 등 대여섯 개의 직업적인 창극단들이 속출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공연을 가졌고 관객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춘향전> 등 판소리의 다섯 바탕과 고전소설 각색물이었고 이광수의 역사소설도 창극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창극에 대한 신파극의 영향이다. 동양극장 연출가 朴 珍이 창극 연출을 하면서 명창들의 연기를 지도했기 때문에 창극이 자연스럽게 신파극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형태의 창극을 관중이 좋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최고 인기 공연물은 단연 개량신파, 즉 토착화된 대중극이었다. 근대연극사에 있어서 소위 대중극의 전성기는 역시 1930년대 후반서부터 1940년대에 걸쳐서였고 그것은 단연 본격 전문극장이라 할 동양극장 개설부터라 하겠다. 여기서 동양극장 개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동안 유랑극단처럼 정처없이 떠돌던 신파극단들이 동양극장에 와서 비로소 직업극단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즉 신무용가 裴龜子가 설립한 동양극장은 처음부터 연극·무용 등 무대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졌고 650여 석이었기 때문에 연극 공연장으로서도 적당했다. 더욱이 동양극장은 대관극장 아닌 본격 공연장으로서 청춘극장과 호화선이라는 전속극단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극작가·연출가·무대미술가 등 전문가들을 소속시켜서 작품을 제대로 만들었고 연중무휴 공연까지 한 것이다.

동양극장이 생겨나기 전에는 극단들이 일본인 소유의 영화관을 빌어 공연을 가졌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도 문제였고 특히 대관료를 과다하게 빼앗아감으로써 극단들은 생존조차 힘들었다. 그런 때 동양극장이 등장하여 연극인들에게 넉넉한 급료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대중극이 꽃필 수 있었다. 林仙圭라든가 李瑞求·李雲芳·金健 등과 같은 재능 넘치는 대중극작가들도 여러 명 탄생했지만 그보다도 黃澈·車紅女·池京順·변기종·沈影 등과 같은 명배우들도 많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들을 아우르고 가르쳐서 성숙된 작품을 만들어 낸 조련사로서 연출가 洪海星과 박 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홍해성이 제대로 된 연출과 연기를 가르치면서 동양극장 연극이 전 시대보다 진일보했기 때문이다. 동양극장에서 비로소 연기훈련 같은 시스템도 생겨났는데, 이는 순전히 일본 츠키지(築地)소극장에서 연수받은 홍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동양극장의 활동으로 연극관객도 대폭 확대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일 밤 600여 명 이상이 연극을 즐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시기에 또 하나의 공연장 부민관이 문을 연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민관이 비록 조선총독부가 세운 다목적 홀이었다고 하더라도 1,200여 명의 관객을 포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극장부족에 허덕여 온 극단들로서는 대형 무대에서 마음껏 공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민관이 연극활성화를 북돋았고 또 대형화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의 중요성이 반드시 대중극의 번창에만 있지 않고 정통 서구근대극을 이식하려는 지식인 연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시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즉 3·1운동 직후 동경에 유학해서 외국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교와 신문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식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는 의미로 문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델은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운동이었다. W. B. 예츠라는 시인이 주동이 되어 시작된 문예부흥운동은 문학보다는 동적인 연극이 주였다. 더블린의 애비소극장을 중심으로 손 오케이스라든가 썩그 등이 민족적 색채가 농후한 드라마를 만들어냄으로써 피압박 민족의 저항심과 독립의욕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그에 자극받은 인텔리 청년들이 연출가 홍해성의 귀국을 계기로 극예술연구회(약칭 劇研)라는 연극단체를 출범시켰는데, 그 창립멤버는 홍해성(일본대 예술과)·윤백남(동경상대)·柳致眞(입교대 영문과)·徐恒錫(동경대 독문과)·崔涎宇(동경대 영문과)·曹喜淳(동경대 독문과)·李軒求(와세다대 불문과)·鄭寅燮(와세다대 영문과)·異河潤(법정대 영문과)·金晋燮(법정대 독문과)·咸大勳(동경외대 노문과)·張起梯(법정대 영문과) 등 12명이었다. 이처럼 명문대학에서 외국문학을 공부한 엘리트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천시받은 연극운동에 나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가령 유치진이 극예술연구회 창립배경과 관련하여 “연극의 전통이 단절된 이 땅에 건전한 연극의 씨앗을 뿌려, 연극 그 자체의 예술적 형태를 탐구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올바른 연극문화를 가지게 하자는 뜻에서 일을 만들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극예술연구회 창립 선언문을 보면 “극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기성 극단의 邪道에 흐름을 구제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신극’을 수립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우리 신극’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신파를 토착화시킨 대중극과 전통극이 아닌 서구근대극의 한국 이식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홍해성과 윤백남을 제외하고 연극창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연수생들과 기성 배우 몇 명을 보태서 창립공연을 가졌는데, 그것이 1932년 5월초 조선극장에서의 〈검찰관〉(고골리작, 홍해성연출) 공연이었다. 세련된 작품은 아니었으나 정석대로 가져간 진지성에서만은 당시의 상업적 대중극보다는 신선한 공연이었다. 창립공연이 언론의 주목을 끌자 지식 청년들이 여러 명 참여해왔는데 毛允淑, 盧天命 등 여류시인들도 무대에 섰던 것이다. 처음에 서구근대극본을 무대에 올린 극예술연구회가 유치진의 〈토막〉으로 데뷔하자 창작극도 곁들여 공연하기 시작했고 잇달아서 李無影·金鎮壽·咸世德 등이 가세함으로써 균형잡힌 레퍼토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극예술연구회는 시인 朴龍喆 회원의 도움으로 잡지(《劇藝術》)까지 발간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는데,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해졌음은 두말할 나위없었다. 그런 증조는 극예술연구회 공연의 심한 검열에서 잘 나타났다. 즉 극예술연구회가 선호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손 오케이시의 작품공연을 일절 불허한

것이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관지 《극예술》을 폐간조치 하고 ‘연구회’라는 명칭을 단체 정비해산의 명목으로 설정하고 극예술연구회를 해산토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경찰 측에서는 극예술연구회를 일종의 사상단체로 물면서 연극을 계속하고 싶으면 ‘연구회’라는 명칭을 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문적 직업극단으로 나아가되 극단 조직만은 무식자로만 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결국 극예술연구회 동인들은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단체이름에서 ‘연구회’를 떼어 내고 일본 직업극단처럼 劇研座로 바꿨는데, 이 때(1938년) 대부분의 창립동인들이 떠나고 연극을 평생할 유치진과 서항석·장기제 3명만 남게 되었다. 물론 극연좌로 바뀐 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다만 순수보다는 흥행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다행히 동경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돌아온 李海浪·金東園·李眞淳 등 신인들이 가담함으로써 극단 보강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극연좌도 오래 가지 못했다. 재출범 뒤 내분도 있었던 데다가 재정문제가 겹치는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경찰의 해산명령으로 1년 여만에 완전 해산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극예술연구회는 1932년 창립공연을 가진 이래 1939년 5월 해산당할 때까지 만 7년 동안 이 땅에 서구적인 근대극을 이식하는데 앞장서면서 신극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던 것이다. 그 공로를 몇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면 첫째 서양연극을 정통적으로 승계 이식해보려고 노력한 점, 둘째 연극을 문화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 노력한 점, 셋째 저급한 당시 대중극을 크게 향상시킨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물론 문화계를 주도하다시피 했던 극예술연구회의 약점도 없지는 않다. 가령 연극을 아마추어리즘으로 한 것이라든가 설익은 번역극 일본도가 외화주의로 빠지게 한 점 등은 그들이 비판받은 대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극예술연구회가 해산당하면서 정통신극이니 민족극이니 하는 의식 넘치는 연극은 사라지고 영리만 추구하는 흥행 극단들만 우후죽순 솟아나서 전국을 순회하는 대중연극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193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카프산하의 프로레타리아 극단들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1934년 일본경찰이 프로예술인들을 검거하는 등 탄압을 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소멸하고 소련과 일본에서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영화도 비교적 활기가 있었다. 영화는 아무래도 기계문명의 산물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리고 나운규 감독의 독무대였던 1920년대와 달리 1930년대는 윤봉춘 · 李龜永 · 李奎煥 등 유능한 신인감독들이 여러 명 등장함으로써 영화계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가령 1930년대의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만 보더라도 <큰 무덤>(윤봉춘 감독), <개화당 이문>(나운규 감독), <임자없는 나룻배>(이규환 감독), <청춘의 십자로>(安鍾和 감독) 등이 나왔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1930년대 영화의 진전은 발성영화가 등장한 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국영화사상 최초의 발성영화가 이필우 · 李明雨 형제 감독이 만들어서 1935년 10월에 개봉된 <춘향전>이라 볼 때, 이는 영화 발전의 轉機가 되는 것이다. 이 발성영화는 창작영화가 시작된 지 16년만의 일이었고 서양보다는 8년 뒤졌다는 점에서 우리 영화의 빠른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발성영화가 급진전된 것은 아니었다. 역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성영화를 만든 이후에도 여러 해 동안 무성영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1930년대에는 화제작이 적잖게 나왔는데, 가령 안종화 감독의 <逆襲>이라든가 나운규의 <아리랑 3편> · <五夢女>(李泰俊 원작소설) 등이 그러한 수작에 들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태준이라든가 이광수 · 鄭飛石 등이 쓴 소설과 유치진이 쓴 시나리오도 영화화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 하나 기록될만한 것은 민족지인 《조선일보》가 영화제라는 것을 개최한 점이라 하겠다. 이기세 · 안종화 · 윤봉춘 등 영화계 인사들이 준비한 《조선일보》영화제에서는 <아리랑> · <심청전> 등이 베스트 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4) 1940년대－연극 · 영화의 암흑기

1940년대 들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극과 영화도 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즉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대동아전쟁으로 확대해 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주만까지 폭격함으로써 세계대전으로 번져갔는데, 그 시점에서 저들이 시급하게 느낀 것은 문화와 지식인에 대한 통제였다. 저들이 극연좌를 해산한 것이라

든가 내선일체니 인고단련이니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도 그 시기였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것도 그때였다.

그 시기에 일본내에서도 문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있었으며 소위 국민연극이라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국민연극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나치스의 국책연극을 모방한 것으로서 연극을 통해 일본정신을 구현하고 정책목표를 긍정적 측면에서 선양토록 한 것이다. 그런 국책극을 이 땅에 그대로 전수시키기에 앞서서 일제는 大和塾이라는 것을 두고 지식인을 묶었으며 1940년 말에는 조선연극협회도 조직케 했다. 이 때 앞장섰던 이서구·金寬洙 등은 조선 총독부의 조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구상했고, 유치진 등 순수 열정파들은 총독부의 속내도 모르고 연극인 양성, 순회공연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순전히 전시체제를 강화시키는 국책극만을 강요한 것이다. 물론 그런 연극을 강요한 총독부가 연극인들에게 특혜도 주기는 했다. 연극인들이 궁핍했던 그 시기에 쌀이라든가 설탕, 구두 같은 것을 배급받고 기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가장 신나했던 이들은 흥행극을 전문으로 하는 연극인들이었고, 지식 연극인들은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유치진·서향석 등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현대극장을 창단케 했던 것이다. 현대극장이 국민연극시대의 기수가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당시 연극계의 리더였던 유치진은 현대극장을 이끌면서 〈흑룡강〉·〈北進隊〉·〈대추나무〉 등 친일 목적극을 썼고 함세덕은 마그셀 빠놀 원작의 〈마리우스〉과 〈화니〉를 일제의 남진정책을 찬양하는 목적극으로 변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연극협회는 1941년에는 조선연예협회까지 끌어들어서 조선연극문화협회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극단 13개, 악극단 8개, 창극단 3개, 곡마단 9개, 이동극단 2개, 만담반 1개 등 36개 단체를 산하에 거느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회원수는 남자 540명, 여자 380명, 그리고 보조원 10명 등 모두 930명이나 되었다. 이 말은 당시 무대공연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공연예술인이 거의 1,000여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正劇으로 또는 창극이나 악극으로, 그리고 만담을 통해서 일제의 군국

주의를 찬양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인텔리 극단은 현대극장과 高協 정도이고 나머지는 흥행극 단체들이었다. 특히 1940년대에는 동양극장에서 세련된 창극과 악극계통의 단체들이 많은 관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만큼 대중은 정극보다 노래와 춤이 곁들인 가무극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하튼 조선총독부가 연극문화협회를 장악한 뒤에 마치 연극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책극을 하도록 했는데, 연극인들은 총독부의 저의를 간파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런 대표적 행사가 1942년 초가을부터 시작된 연극경연대회였다. 제1회 대회에는 현대극장 등 5개가 참가했는데 단체상은 아랑과 고협이 차지했고, 제2회 대회때는 일어극 공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저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극경연대회 말고 조선연극문화협회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동극장운동이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공연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고, 지방 특히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연극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국책극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동극장운동을 확산시킨 것이었다. 이 운동이야말로 연극문화협회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경우였다.

그런데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창극은 급속히 쇠퇴해갔다. 여성 배우들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창을 부를 수 있는 젊은 기생들을 일제가 정신대로 끌고 간 데 따른 것이다. 이 시기에 친일어용극, 특히 일본어연극까지 강요하는 일제에 항거하여 연극계를 떠난 연극인도 몇 명 있었다. 가령 동양극장 연출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박 진과 동양극장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崔獨鵬이 바로 그런 몇 안되는 연극인이었다.

이 시기의 영화도 연극 이상으로 하나의 암흑기였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총독부가 영화분야도 공연예술분야처럼 하나로 묶기는 마찬가지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1940년 정월에 <조선영화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전국의 영화사를 모두 해체시키고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인들에게 친일어용영화를 만들도록 했다.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승리의 뜰>(方漢俊 감독), <지원병>(安夕影 감독), <반도의 봄>(李炳逸 감독) 등이

었는데, 이들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청년들이 군에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수선화>와 같은 멜로물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부분의 영화는 목적성을 띤 어용영화였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 시기에는 또 일본인 감독들도 몇 명 내한해서 우리 배우들을 데리고 어용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일제의 한국병탄 이후 해방될 때까지의 36년 동안은 공연예술과 영상예술은 커다란 암흑기였다. 그런데 그 기간이야말로 우리의 근대극과 영화가 생성되고 발전하는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압제라는 너무나 열악한 시대상황이 펼쳐졌던 관계로 연극 영화가 제대로 뻗질 못하고 비틀리고 왜곡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정치·경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험난한 도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또 순응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柳敏榮〉